



 잊지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필통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합니다!

- ▶◀ [이달의인물] 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 조세은
- ▶◀ [청소년뉴스] 청소년 절반 혼전동거 OK, 결혼 꼭 안 해도 돼
중2부터 외고·국제고 입시, 영어 절대평가 반영
- ▶◀ [학교소식] 진주 동명중 급식소 개소식
진주중앙중 함께 '다복하자' 나눔 데이
진주향교, 진주동명고 인성교육
진양고 야구장서 애국가 열창
- ▶◀ [특집] 19금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 ▶◀ [맷강년맷반] 진주제일여고 2학년7반 편
- ▶◀ [반보드 enquete] 진주고 2학년 8반 VS 진주여고 2학년 4반
- ▶◀ [GO발! 이의있습니다 ③] 위험한 등굣길
- ▶◀ [타요?타요!] 등학교길 학생들로 꽉 찬 130번
- ▶◀ [필통에게 물어봐] 궁금증 FACTCHECK
- ▶◀ [학교VS학교] 초전동 명신고 VS 충무공동 진양고
- ▶◀ [진주 역사투어] 솟대쟁이패를 아십니까?
- ▶◀ [JOB을 잡아라] 진주가좌복지관 사회복지사 최명국팀장을 만나다
- ▶◀ [동아리탐방] 경상사대부고 생명의학동아리 SCI-CO
- ▶◀ [19금을 찾아서] 교복입고 콘돔을 구입한다면?
- ▶◀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경상대학교 원예학과를 찾아서
- ▶◀ [알립니다] 다재다능, 청소년 뮤지컬단이 창단된다!
- ▶◀ [SNS 뜨거운감자] SNS 새로운 소통문화 '진주익명고백'
- ▶◀ [핫플레이스] 진양호동물원 재개장
- ▶◀ [취재수첩]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을 잘 키우고 있을까?
오타쿠, 덕후가 뭐 어때서?
모의고사 백분위? 무슨 뜻이지?
막치는 어디로 갔을까?
내신 1등급들이 추천하는 그들만의 공부법
- ▶◀ [필통우체통] 독자글모음
- ▶◀ [필통네모로직] 1등 2명/ 2등 21명 당첨



W White Medical
하얀메디컬

하얀메디컬은
분야별 전문의가 진료를 합니다

하얀메디컬 전문과목
하얀피부과
하얀성형외과
하얀소아청소년과
하얀이비인후과



www.whitemedical.co.kr

2017년 한 해도 진주 아이쿱 생협은
필통과 함께 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스러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달의 인물] 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 조세은

“가브리엘 샤넬을 뛰어 넘는 나만의 브랜드를 가진 디자이너&사업가가 될 거예요”



Q.간단한 자기소개를 한다면?

A.안녕하세요. 진주여고 다니는 3학년 9반 조세은입니다. 패션·모델 동아리 '보그'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Q.동아리도 진로를 위해 활동하시는 건가요?

A.음...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패션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모델도 다 패션 관련 일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무대에 서는 것이 행복해요. 런웨이에 서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에요.

Q.대학 진학도 그쵸인가요?

A.지금은 대학도 뚜렷하게 목표가 있습니다. 실제로 옷도 스케치하고 직접 만들고 지금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지만 현재는 1차적으로 대학을 위해 공부 열심히 하고 미술학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Q.한복모델선발대회에 참가했다고 들었는데?

A.패션 쪽에 관심이 많다보니 평소엔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 때 선발대회가 있길래 신청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본선까지는 진출했는데 결선에서 아쉽게 떨어졌어요. 올해 5월에는 서울에서 하는 교복 모델선발대회에 나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웨딩쇼도 계획되어 있어요.

Q.다른 활동을 한 적도 있나요?

A.동아리는 학교축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 외엔 개인적으로 의류 쇼핑몰에서 핏팅모델을 한 적이 있어요. 모델로 제가 입은 의상을 받았죠. 한가지 아쉬운 점은 진주에 살다보니 '패션워크' 같은 행사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멀기도 멀고 표를 구하기도 어렵죠.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진주에서도 패션과 관련된 행사나 이벤트를 만나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Q.대학준비나 대회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A.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보기보다 엄청 많이 먹거든요. 보통 패션쇼나 행사가 다가오 전에는 식단관리를 하는데 한번은 쇼를 앞두고 평소보다 지나치게 음식을 먹지 못해서 길가다가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저에게 맞는 식단 관리법을 찾고 나를 건강하게 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Q.예쁜 몸매 유지 비결은?

A.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기 보단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웨이트도 하고 요가도 하죠. 몸매보다는 체력을 위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된다면 모델도 하고 싶고 그런 경험이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Q.좋아하는 디자이너가 있다면?

A.가브리엘 샤넬이 롤모델이죠. 그 당시 여성이 디자이너로 활동하기 어려운 시대임에도 자기 길을 만든 것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자신의 브랜드로 사업가로도 성공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롤모델 샤넬을 뛰어 넘고 싶어요.



Q.마지막으로 패션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A.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면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델도 자기관리 꾸준히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전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어요.

[취재/ 양지인(진주여고2)기자]



〈진주여고 일신 축제, 패션-모델 동아리 보그의 무대〉



〈진주여고 일신 축제에서 런웨이를 걷다〉



〈한복 모델 선발대회에 참가하다〉



〈피팅모델등 다양한 경험은 미래를 위한 작은 과정〉



〈지금의 꿈과 노력이 10년 후 우리의 명함이 된다〉

[필통칼럼]

흔들리지 않고 파는 꽃이 어디 있으랴?



왜 공부해야 하지? 라는 물음은 우문인지 모른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말이다. 좀 솔직히 얘기해보자. 사실 지금 하는 공부가 나중 필요한가? 실제 삶에 쓰여지는가? 아니다. 대부분 아무짝에 쓸 데가 없는 것들이다.

진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결과에 따라 명백한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차이가 아닌 차별이다. 같은 교실에 앉아 있는 지금은 그다지 그렇게 큰 차별이 없지만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고졸인지, 대졸인지,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영어를 잘하나 못하나? 그것으로 우리 사회는 큰 차별이 있다. 안타깝지만 그 차별은 곧 인격의 차별이고 사람의 차별이다.

2류대 지방대라는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버려지고, 같은 회사 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절반에 임금이 만족해야 하고, 학벌이 인격처럼 또는 계급처럼 낙인 되고, 돈 없고 학벌 없다는 이유로 결혼 상대도 줄어들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능력보단 학벌에서 밀리고, 취업난에 이곳저곳 원서 넣지만 번번히 SKY에 치이고, 뒤늦게 공무원시험 보려 해도 공부로 날고 가는 고수들 준비하니...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고,

그래서 대학 가라고 난리다.

공을 이루기 위해선 한목소리로 닥치고 공부하라고들 한다. 맞다. 그것이 현실이다. 지금은 한교실에서 웃고 떠들지만 20년 후엔 누구는 의사네 변호사네 좋은 차에 으리으리한 아파트, 이쁜 마누라에 목에 기브스 한 마냥 품 나게 앉아 있고 누구는 찌질하게 나를 잘 나간다는 친구를 모습에 뱀이 꼬여 공한 모습으로 씌 주잔만 연신 들이킬 거다.

그래서 공부해야 하는가? 차별을 누리면 행복한가? 누군가의 뒤통을 빼앗아 더 많은 권리를 누리야지만 그것이 꿈이고 성공인가? 차별과 차이는 다른 것이다. 공부를 한 결과가 차이를 만들 순 있어도 차별을 만들 어서는 안 된다.

공부를 못하고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꿈이 차별 받아선 안 된다. 부와 명예를 얻는 성공만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가? 어쩌면 무엇이 되는 것 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무엇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공부 잘해서 판검사가 된 친구와 공부 못해서 구두수선공이 된 친구가 갈을 순 없다. 그러나 또 다를 건 무언가? 판검사의 사회적 책무에 경의를 표하고 수선공의 기술에 박수를 보내면 된다. 평소 입는 옷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며 만나는 사람이 다를 뿐이지 않은가? 왜 차이를 우리는 차별로 만들까? 경쟁에서 이긴 이들은 그 차별을 유지하려 하고 패배한 이들은 스스로의 삶에서 꿈을 지워버린다. 꿈은 판검사가 된다고 이루어지는게 아니다. 수선공이 된다고 사라지는게 아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공부 잘해서 성공이란 꿈을 하더라도 스스로 차별을 거부하고 기득권이 아닌, 삶에서 행복을 찾으며 자신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경쟁에 밀려 조금 뒤처지더라도 차이는 받아들이고 차별에 저항하며 흔들리는 바람을 자양분 삼아 자신만의 꿈을 꽃피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통편집국]

청소년 절반 혼전동거 OK, 결혼 꼭 안 해도 돼

청소년 과반수가 혼전동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는 4월17일 발표한 '2017 청소년 통계'에서 2008~2016년 사회조사 결과를 이용해 청소년(13~24세)과 부모세대(50~69세)의 결혼과 가사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으로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청소년은 61.7%로 나타났다. 2008년 56%에서 2010년 53.3%, 2012년 58.4%, 2014년 56.8%에 이어 60%를 넘어선 것이다. 다만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는 청소년 30%만이 동의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6.2%,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2.5%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51.4%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했다.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2010년 36.7%에서 2012년 40%, 2014년 44.4%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응답

한 청소년은 48%였고, 이혼에 반대하는 청소년은 27%였다.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데 대해서는 청소년의 77%가 상관없다고 생각해 2008년 66.2%에서 크게 늘었다. 청소년의 78.5%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2010년 34.3%에서 2016년 18.9%로 크게 줄었다.

월화수목금금금 학습노동 이제 그만 학생도 일요일엔 좀 쉽시다

"일요일에 학원에 안 가고 집에 있으면 걱정이 돼요.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18살 고교생 ㄱ) "우리도 사람인데 평일에도 야간 근무를 하고, 일요일도 없이 1년에 365일 근무를 해요." (학원 강사 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이 최근 내놓은 '학원 휴일휴무제 및 학원비 상한제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중고교생 36%가 일요일에도 학원 강의를 수강하며, 사교육을 포함한 일요일 공부 시간이 '10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이 8.6%로 나타났다. 학원 휴일휴무제에 찬성하는 의견은 중학생 75.5%, 고등학생 51.9%, 학부모 68%로 나타났다.

중2부터 외고·국제고 입시 영어 절대평가 반영

현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 고입전형부터 외고·국제고 입시에서 영어성적을 전면 절대평가로 반영한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과도한 학습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19학년부터 외고·국제고 입시에서도 영어성적 반영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고 4월20일 행정 예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중학교 모든 교과에서 절대평가제(성취평가제)를 전면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석차가 아닌 절대평가로 매겨진 등급을 받고 고교 입시에서도 이 성적을 반영해 왔다. 절대평가 하에서는 경쟁자 점수와 무관하게 학생 개개인의 교과 성취도에 따라 등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학교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외고·국제고는 입학전형에서 여전히 영어 상대평가 점수를 요구했다. 2학년 성적은 절대평가 성적을 반

영하지만, 3학년 영어성적은 상대평가에 따른 석차(9등급제)를 요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선 중학교에선 외고·국제고 입학에 원하는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결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에 치러질 2019학년도 외고·국제고 입학전형부터 영어성적 반영방식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토록 했다.

고교 교사들 수능시험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현직 고교 교사 상당수가 수능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들은 고교수업이 수능시험에 짓눌리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는 지난 4월18일 서울 광운대학교에서 '현장 진로·진학교사 대상 2021학년도 대입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협의회는 이날 지난 4월9일~12일까지 전국의 현직 고교교사 7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가 "수능 절대평가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2개 복수응답 가능)로는 "학생간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40%)", "사고력·문제해결력 중심의 수업이 확대될 수 있다(25%)",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23%)"라는 답이 많았다. 수능 절대평가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33%였다. 반대하는 이들은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다(23%)"를 이유로 꼽았다. 수시모집을 축소하고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71%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반대 이유(2개 복수응답 가능)는 "수시 모집 전형들이 다양한 능력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39%)", "수능 위주 전형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맞지 않는다(33%)"가 많았다.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원인 1위 9년 연속 자살

자살이 9년 연속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원인 1위로 꼽혔다. 우리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는 '평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5년 9~24세 청소년의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교통사고 등 운수사고(4명)가 사망원인 2위에 올랐으며 악성식생물(암)에 의한 사망은 2.9명으로 3위로 꼽혔다. 2015년 자살로 사망한 청소년은 총 708명으로 이는 암으로 사망한 청소년 282명보다 2.5배 많은 숫자다. 다만 2009년 10.3명으로 최고정점을 찍은 뒤 청소년 자살 사망률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데는 스트레스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3~24세 청소년의 46.2%는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자(40.1%)보다 여자(52.5%)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연령별로는 13~19세(42.7%)보다 20~24세(50.3%)의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계-꿀벌지 같은 성차별성 발언 방송금지

"남자들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팔십이라도 그런 유혹 앞에서는 건널 수 없어."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보도 프로그램 중 발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점검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아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4월11일 밝혔다.

안내서는 방송사와 제작진이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

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5개 영역으로 나눠 정리하고 영역별로 점검 포인트와 구체적인 좋은 방송사례를 제시해 이해를 도왔다. 안내서에 따르면 주제 선정에서부터 특정 성의 시각이나 관점이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성 불평등한 현실을 소재로 방송을 제작할 경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단순화하지 않아야 한다. 또 방송이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양성성의 다양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 병원 드라마에서 남성간호사를 등장시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좋은 방송 사례로 제시됐다. 아울러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서는 안 되고 '영계' '180cm 미만 루저' 등 성차별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30분 배달 없애겠다 8개 프랜차이즈 알바 보호 약속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8개사가 주로 청소년인 배달근로자 보호를 위해 시간내 배달 등 위험요소를 근절하고 재해예방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청과 함께 4월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안전보건컨퍼런스'에 제너시스비비큐, 롯데리아, 한국맥도날드, MP그룹, 교촌에프앤피, 청오디피케이, 한국피자헛, 알볼로에프앤씨 등 8개 프랜차이즈 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앱 주문거래 증가와 1인 가족 확대에 따라 배달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30분 배달' 등 시간내 배달 독려, 배달 건수에 따른 임금 지

급, 소비자의 주문 재촉 등 배달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도 늘고 있다. 이에 이들 프랜차이즈 기업은 이날 △시간내 배달 근절 △작업·가맹점의 이륜차 운행 전 안전 점검 △배달문화 개선 캠페인 △안전보건기자 확대 등을 통해 배달근로자의 재해 예방에 나서자고 공동 결의했다. 정부는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 수요가 늘어나는 5~8월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잔혹 동영상에 멍드는 10대들 영혼

'인육은 어떤 맛일까.'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사형법 TOP 10.' 유튜브에 '살인'이란 단어를 검색하자 쏟아진 동영상의 제목이다. 일부 게시물에는 '공포 혐주의(혐오 주의의 약자)' '극혐' 등의 문구가 보였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설명하기 힘든 끔찍한 영상들이 이어졌다. 길로 난도질당한 채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돼지, 사람의 잘린 손가락과 두 갈래로 찢긴 헛바닥 사진 등 엽기적인 콘텐츠들이 난무했다. 일반 포털 사이트도 마찬가지. '엽기' '참수' 등의 단어만 검색해도 관련 사이트와 영상물, 사진 등이 곧바로 떴다. 모자이크 처리나 부분 편집 조치가 없는 낱것 그대로의 영상도 많았다. 'IS 참수'란 제목의 동영상에선 인질의 목이 칼에 잘리는 모습이 그대로 재생됐다.

요즘 음란물 못지않게 청소년이 많이 접하는 온라인 콘텐츠의 주제는 '엽기'다. '자유로 귀신' 같은 괴담은 양호한 수준. 어른도 보고 나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정도의 영상이 넘쳐난다. 4월11일 여성가족부의 '2016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41.5%)이 "1년 사이 '성인용 영상물'(음란 폭력 잔혹물 등)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재 차단 방법은 마땅치 않다. 유해물 차단 애플리케이션이나 차단 설정 기능 등이 있지만 우회 경로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암 투병 김정태씨 모교 진주고에 장학금 2000만원

암 투병 중인 80대 노인이 모교인 경남 진주고등학교에 거액의 장학금을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4월25일 경남도교육청과 진주고에 따르면 진주고 23회 졸업생인 김정태(85)씨는 최장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이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모교 후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장학금을 기탁하고 싶다는 뜻을 가족에게 밝혔다. 이에 김씨의 부인과 장남 김종인(진주고 45회 졸업생)씨는 지난 4월13일 진주고를 방문해 김철근 교장에게 김씨가 평생 건여를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2000만원을 장학금으로 맡겼다.



진주향교, 진주동명고 인성교육



진주향교 충효교육원(전교 겸 원장 심동섭)은 지난 3월29일 오후 7시 30분 진주동명고등학교(교장 김복률) 2학년 희망자 50명을 대상으로 개학식과 1주차 인성교육을 실시했다. 이 인성교육은 지난 해에 이어 실시되는 교육으로 인성예절 및 전통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품성을 갖춘 교양인을 양성하기 위해 1·2학기 기별 7주, 주치별로 2시간씩 실시한다. 이 인성교육은 심동섭 전교를 비롯한 진주향교 전문 강사 7명이 진행하며, 주제는 '향교의 역할과 목적, 유교경전 강독, 우리 지역의 유학자 남명 조식, 도예절, 관혼상제, 관례 및 수료식' 등이다.

진주교육지원청 2017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실시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명규)은 4월20일 천전초등학교와 진주남중학교에서 '2017. 진주청소년과학탐구대회'를 실시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된 이번 대회는 융합과학, 기계공학, 항공우주, 과학토론 4개 영역에 초등 141팀, 중등 64팀, 총 205팀 462명이 참석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진지한 모습으로 과학적 사고력과 기량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교 대회를 통해 선발된 대표학생으로서 각 종목별 주어진 문제와 미션을 팀별로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또한 서로 협업하며 과제를 수행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은 6월에 있는 경남청소년과학탐구대회 진주 대표로 출전 자격을 얻게 된다.



진주시 청소년어울림마당 개최



진주시는 지난 4월15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에서 청소년과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월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경상대학교 댄스동아리의 식전공연과 함께 2017년 청소년어울림마당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진행됐으며 이후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 문화공연과 홍보무대가 펼쳐졌다. 청소년 문화공연에서는 댄스, 밴드, 난타 등 6개 동아리의 열띤 무대공연이 펼쳐졌으며 공연 중간중간 마련된 동아리 홍보무대에서는 명석중학교 진로 동아리 '시크릿'을 비롯한 3개 동아리 소속 청소년들이 직접 무대 위에 올라 자신들의 동아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어울림마당은 순우리말로 청소년이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장이라는 뜻으로 다양한 체험거리와 문화공연 등이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6회 운영된다.

진주시는 지난 4월15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에서 청소년과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월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경상대학교 댄스동아리의 식전공연과 함께 2017년 청소년어울림마당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진행됐으며 이후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 문화공연과 홍보무대가 펼쳐졌다. 청소년 문화공연에서는 댄스, 밴드, 난타 등 6개 동아리의 열띤 무대공연이 펼쳐졌으며 공연 중간중간 마련된 동아리 홍보무대에서는 명석중학교 진로 동아리 '시크릿'을 비롯한 3개 동아리 소속 청소년들이 직접 무대 위에 올라 자신들의 동아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어울림마당은 순우리말로 청소년이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장이라는 뜻으로 다양한 체험거리와 문화공연 등이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6회 운영된다.

진주 초장동 깨끗한 통학로 조성한다

지난 4월19일 진주동명고등학교와 경남자동차고등학교 학생 100여명은 각각 통학로 주변 환경정비활동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3월 22일 초장동 주민센터와 '학생들과 함께하는 깨끗한 통학로 조성' 협약에 따른 것으로 통학로 및 학교 주변 행인 및 학생들이 버린 각종쓰레기들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깨끗한 통학로 조성' 협약으로 진주동명중학교, 진주동명고등학교, 경남 자동차 고등학교가 참여하여 월1회 지정된 날에 학생들이 직접 통학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쓰레기마대 지원 및 수거를 하며 참여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진주남중 바른 인성 함양 도서 기증



진주남중학교(교장 김태진)는 지난 4월14일, 다락 도서관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전 학생들에게 '어린왕자 멘토 이야기',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를 기증하는 식을 가졌다. 교육법인 국제사회교육재단에서 기획한 이 후원 행사는 한 그루 출판사(주) 배승호 대표가 도서 800권을 기부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으로 충만한 학교생활이 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15년만에 진주여중 도시계획도로 뚫렸다

도로의 단절로 시간·비용적 손해 발생, 도로 미개설로 인한 좁은 골목길은 우범지대로 전락 등 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던 진주여중·진주교대 사이의 도시계획도로가 15년만에 드디어 개통됐다. 신안·평거지역 아파트 밀집지역과 이현동 서진주 IC도로를 연결하는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다. 이 도로는 2014년 12월 26일 착공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260m, 폭 20m, 4차로 도로로, 도로장상부 86m 구간을 개착식 터널방식(PC박스)으로 시공해 연접 학교시설과의 조화로운 도로건설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도로 개설로 평거·신안동 지역과 이현동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망이 구축됨으로써 수십년간 우회노선을 통행했던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시가지 교통난 분산은 물론 특히, 진주여자중학교 주변의 낙후·우범지역 해소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명여중 폭력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자

진주 진명여자중학교(교장 백명숙)는 4월21일 오전 7시50분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친구야! 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함께 만들자'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은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으며 특히 모바일을 통한 지능적인 학교 폭력이 줄지 않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였고, 서로를 배려하여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진명여중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

기'를 위해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폭력 설문조사, 범죄예방교실 운영, 담임교사 생활지도, 각종 캠페인, 초청 강연, Wee class 운영, 학교폭력위기진단체커리스트 활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압도적 MVP 선명여고 출신 이재영



대한민국 여자배구 거포 계보를 잇는 진주 선명여자고등학교 출신 이재영(21·흥국생명)이 신인왕에서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MVP)까지 거머쥐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14~2015시즌 프로 무대에 뛰어든 이재영은 겁없는 활약으로 신인왕을 차지하더니, 2015~2016시즌에는 국내 선수 중 득점 1위를 차지하며 여자부 베스트 7 레프트에 선정돼 V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도약했다. 그리고 2016~2017시즌 이재영은 프로데뷔 3년 만에 팀을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끌며 여자부 '최고의 별'로 떠올랐다. 이재영은 4월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6~2017 NH농협 V리그 시상식에서 전체 29표 가운데 20표를 얻어 여자부 정규리그 MVP로 선정됐다.

진주 천수로타리·YMCA 청소년 생리대 지원

진주천수로타리클럽(회장 이희옥)과 진주YMCA(이사장 서창수)는 3월22일 지역 저소득 청소년 40명에게 위생용품 6개월 치를 전달했다. 진주YMCA는 저

소득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확보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 학교시설 정보 내달부터 인터넷 조회

도내 초·중·고 학교시설 정보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착수한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차 사업이 완료돼 4월부터 시스템이 오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시설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교육청 담당자 업무 효율화는 물론이고 학부모·학생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기숙사 등 학교 시설을 조회할 수 있다. 교육부 주관으로 지난 2015년 8월에 시작해서 오는 2019년 3월에 최종 완성되며, 1차 구축사업은 3월 말까지 완료돼 4월부터 시스템이 오픈될 예정이다.

경남도내 특성화고 중소기업 취업률 전국 최고

경남지역 특성화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에서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이 프로그램이 지역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 대응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88.6%로 전국 최고를 달성했다고 4월14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에서는 총 181개 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도내에서는 10개교가 참여했다.

특히 마산공고 100%, 경남항공고가 98.2%의 취업률을 기록하는 등 취업 맞춤형 교육이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기계공고의 경우 2012

년 64%였던 취업률이 이 사업에 참여한 뒤 2015년에는 74%, 2016년은 81%까지 치솟는 등 매년 취업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로 5년째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남자동차고는 컴퓨터응용산업과정, 컴퓨터응용밀링 과정, 특수용접 과정, CAD/CAM 과정 등 총 4개 과정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 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대곡중-좋은세상 봉사활동 협약

진주시 '좋은세상' 대곡면협의회(회장 이현옥)는 다함께 잘 사는 '좋은세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3월29일 대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대곡중학교(교장 윤삼열)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한 결연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곡중학교 봉사동아리 학생들은 매월 1회 이상 관내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관내 경로당과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집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만남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주변 청소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 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경찰청-경남예술고 안전경남 업무협약

경남경찰청과 경남예술고등학교는 지난 3월31일 경남예고 교장실에서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남경찰청 김오영 홍보담당관과 김영수 경남예술고등학교장은 앞으로 학교폭력 안전선 등 '경남경찰 In Line 운동'의 확산과 '3대 반칙행위 근절'의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두 기관은 학생과 경찰관의 협업을 통해 도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치안홍보 콘텐츠 제작에 나설 계획이다.

동명중 급식소 개소식

진주동명중학교(교장 김대성)는 급식소 개소를 축하하는 급식소 개소식을 지난 3월22일 오후 전 교직원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했다. 방과 후에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이창희 진주시장, 정명규 진주교육장, 천재훈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균환 동창회장, 이도진 학부모회 회장 등 학교 교육에 애정을 가진 귀빈들이 참석하여 새 급식소의 탄생을 축하했다.



점들이 이번 급식소 개축으로 인해 모두 해결되었다. 이번 진주동명중학교의 급식소 개축은 총 13억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개월의 공사기간을 통해 완공되었다.

진주중앙중 함께 다복하자 나눔 데이



진주중앙중학교(교장 정호경)는 지난 4월18일 눈부신 아침, 애교의 날 정문 등교일에 맞추어 1인1사랑 나눔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푸드뱅크, 빛슬마루 교육복지실에서 기획하고 전교학생회가 주관하여 이루어졌으며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아침 일찍, 함께 하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박수로서 맞아

주는 등 나눔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진주중앙중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학생들에 대한 기부실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도우며 작은 나눔 실천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진양고 야구장서 애국가 열창



진양고등학교(교장 강대석) 합창부 '소리어울림'이 지난 4월11일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NC와 LG경기의 개회행사에서 애국가를 불렀다. 진양고등학교 합창동아리 '소리어울림'은 지난해 도내 중등학예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제66회 개천예술제 합창 고등부 대상을 수상하는 등 합창 분야

에서는 이미 환상의 하모니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평소 야구에 관심이 없었던 여학생들조차 야구장의 뜨거운 열기와 응원문화에 함께 동화되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스포츠의 짜릿한 승부를 통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었다.

개양중 마음까지 안아주는 보듬과 안김의 날



경남 진주시 개양중학교는 4월13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등교시간을 이용해 2017학년도 '보

듬과 안김의 날(허그 데이)'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9회째 개양중학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으며 해를 거듭해가고 있다.

보듬과 안김의 날(허그 데이)' 행사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라는 말과 함께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것 외에도 미리 준비한 간식을 나누어 주며 선생님, 학생 모두 학교생활이 오늘처럼 늘 즐겁고 행복하기를 기원했다. 또 안아주기 행사에 이어 "모여래 우리반"이라는 학급별 단체사진 콘테스트는 재치있는 제목을 붙인 멋진 단체사진을 찍어 1년의 시작을 추억으로 저장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진주고등학교 느낌이 있는 작은 음악회



진주고등학교(교장 김철근)은 지난 4월13일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한 '느낌이 있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일환으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문화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통해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진주고 출신인 강선규씨의 재능기부로 기타 연주 등이 펼쳐졌다.

진주남중 전교생 친구사랑 실천



진주남중학교(교장 김대진)는 4월19일 등교시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남강 한마음 건기를 통해 친구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가졌다. 남강 한마음 건기는 도보 등교를 통해 건강과 체력 증진 및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게 하고, 학생회 주관으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친구사랑을 통해 교내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며 절박한 교통비를 모금하여 본교에 재학 중인 어려운 학생을 돕는 선행을 체험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행사는 2004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급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는 매년 4~6회 실시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살아있는 교육으로써 남중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봉원중 행복에너지 충전의 날 행사



진주봉원중학교(교장 조일래)는 4월13일, 점심시간에 2017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힘찬 출발을 내딛는 '행복에너지 충전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진주봉원중학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학생들과 교직원의 인식 전환의 기회 마련의 목적으로 열렸다. 특히 전교생과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의 낙인감을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주제로 한

짙은 이벤트를 통해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선사하게 되었다. '교육복지 4행시, 교육복지 4컷 만화, 교육복지는 O.O이다' 등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영역을 선택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행복 에너지를 전파한다는 취지에 맞게 참여한 대다수에게 작은 선물을 증정하였다.

삼현여중 진주종합경기장 탐방



삼현여자중학교는 4월6일 진주종합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관람과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종합경기장 구조물의 원리를 연구하고, 운동장에서 체육활동과 야외광장 및 영천강 트레킹 활동 등도 펼쳤다.

동명고 출신 배구선수, 배구교실 개최



진주동명고등학교 출신 배구선수들이 지난 4월3일 모교를 찾아 '일일 배구교실'을 열었다. 전진용, 전광민, 정진연, 박대용, 김인혁은 이날 행사에서 후배들에게 배구의 기초 동작 및 기술, 전략 등을 지도했다. 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인회를 가지면서 후배 사랑과 모교 사랑을 실천했다.

진주기공 펜싱장 사업비 3억9500만원 확보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 자유한국당)은 4월2일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펜싱장 사업비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9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진주기계공고 펜싱부는 1972년 창단되어 우리나라 고등학교 펜싱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많은 국가대표 선수와 감독들을 배출했으며, 특히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금메달을 획득한 박상영 선수를 지도한 감독도 진주기계공고 출신이다. 이처럼 진주기계공고는 펜싱을 교기로 선정해, 40여년의 우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용펜싱훈련장이 없어 일반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강당을 함께 사용하며 교육활동 지장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진주관내에는 개양중학교, 제일중학교에서 펜싱이 교기로 선정되어 있으나 훈련장이 없는 상황이다.

[특집] 19금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투표권 안 줘도 대통령 뽑는다 청소년들이여! 모의대선에 참여하자

졌지만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4월1일부터 5월8일까지 선거권이 없는 만 19살 미만 청소년이면 누구나 누리집(www.18vote.net)에 들어가 청소년 선거인단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간단히 입력하면 등록은 끝난다. 실제 19대 대통령 선거일과 같은 5월9일에 청소년들도 누리집이나 지역별 오프라인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면 된다. 실제 선거 일정과 똑같이 5월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도 할 수 있다. 운동본부는 선거인단 20만 명 모집을 목표로 삼았다. 운동본부는 선거가 끝나면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들이 뽑은 대통령에게 당선증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실제 대통령 당선인과 다르더라도 청소년들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는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19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www.18vote.net에 선거인단 등록하자

수 년 혹은 수십년간 청소년의 투표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따르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투표할 나이가 되기도 전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니가 월아나는 식으로 말하지만, 하루가 지나 스무살이 되면 관심이 없다고 나무란다. 하룻밤 사이에 박사라도 되어야 하는 걸까.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일환으로 모의투표를 진행한다.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청소년 20만명을 모집해 투표를 실시한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정치적 권리를 찾기 위함이다.

모의 선거인단 모집부터 당선증 전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선거와 동일한 기간에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시행된다. 적은 수이지만 청소년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요구를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선거권이 없는 만 19살 미만 청소년들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의대선'이지만, 실제 대선일인 오는 5월9일에 청소년들의 대통령을 뽑아 당선인에게 당선증도 전달한다.

한국와이엠시이(YMCA)전국연맹이 꾸린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 (운동본부)는 만 19살 미만 청소년 선거인단 20만명을 모집해 5월9일 모의대선을 치른다. 촛불 정국에서 만 18살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나만 안되는 선거,

'투표권'을 줄게



청소년 선거인단 20만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참여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투표를 못하게 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이 직접, 뽑는 대통령

※청소년 선거인단 중 추첨을 통해 차킨 100마리를 뽑는다

참여 가능해요!

▷▷ 만 19세 미만, 투표권을 갖지 못한 청소년 누구나

어떻게 해요?

▷▷ www.18vote.net 들어간다! (4월 1일 coming soon)

▷▷ 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고

선거인단에 등록한다! (초간단)

▷▷ 사이트(www.18vote.net)에 접속하거나 오프라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에 참여한다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 선거인단 모집: 2017년 4월 1일 ~ 5월 8일

▷▷ 투표일 - 사전선거: 2017년 5월 4일 ~ 5일

- 본선거: 2017년 5월 9일

주최 |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
문의 | 운동본부 사무국(한국YMCA전국연맹) ☎02)754-7893

우리는 혈부자가 아닙니다 선거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국민들에 의한 대통령의 탄핵, 그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 또한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요즘이다. 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청소년 참정권이 또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선거권은 헌법이 제정된 1948년엔 만21세였다. 그 후 1950년에 20세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후 무려 54년이 지난 2005년 겨우 현재의 만 19세가 되었다. 만19세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당시 여당과 야당이 만20세와 만18세를 놓고 싸우다 타협해서 만19세가 된 것이다. 선거연령 만18세 하향논의는 선거때면 늘 반짝하고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패턴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9세 미만은 투표할 수 없고 선거운동도 정당가입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현재 합헌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만19세 미만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부모나 교사등 보호자에게 어느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미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직장 다니는 나이의 사람들을 '정치적 판단이 미약하다, 보호자에 의존한다.' 라는 논리는 궁색해 보인다.

**주민증, 결혼, 군입대,
공무원시험, 세금납부 OK!
선거권은 NO!!**

그런데 이런 선거법의 만19세 기준이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과는 기준이 다르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상 미성년자기준도 얼마전까지 20세로 되어 있다가 지난해 2013년 7월부터 20세에서 19세로 바뀌었다. 법마다 성인의 연령기준이 달라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병역법에서는 만18세 이상이 징집대상이고 공무원법에도 임용기준을 만18세로 하고 있다. 그밖에도 만18세가 되면 결혼과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며 만17세부터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유언의 효력도 발생한다. 이처럼 다른 법률에서는 대부분 만 18세 이상을 대한민국의 성인으로 보고 있다. 결국 주민증도 있고 면허증도 있으며 결혼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가고 공무원도 되는, 또 세금도 내는 국민인데 선거권이 없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기준 232개국 가운데 92.7% 정도(215개국)가 선거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 유일하게 만 19세다. 일본은 지금 만 18세로 개정중이니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된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아르헨티나는 2012년 선거권 연령을 만18세에서 만16세로 낮추었고,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 등에서도 18세를 만16세로 낮추는 논의

를 벌이고 있다. 뉴질랜드와 스위스는 특별히 지방선거는 16세 이상으로 정했고 독일의 일부 주에서도 지방선거연령은 만16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학생은
교육의 수혜자고 주체
교육감선거에는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선거권이 만18세로 낮아진다고 해서 현재 고3 학생들이 모두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고3중 일부다. 선거 시기에 따라 생일을 지났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8세에 입학한 경우에 생일이 지난 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7세에 입학한 학생들은 아예 제외가 된다. 실제 선거일에 따라 해당되는 고3학생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삼는 현재의 '만' 연령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청소년 선거권을 두고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인데 굳이 정치에까지 신

경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학생들의 의견들도 있지만 투표권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덜 가지고 교육정책이나 제도에서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배제시키는 것이라며 선거연령이 낮춰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더구나 교육감선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한 교육의 직접적 수혜자로 교육주체중 하나인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선거는 몰라도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의 참여와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참여의 중요성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교육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선거철이다.

[필통 편집국]

‘큰 정부’ 내세운 문재인



선거권 만 18세 찬성

공약 고교 무상교육, 대학생 반값등록금

공약 1수업 2교시제, 고교학점제 - 수강신청제

공약 외고·자사고 → 일반고, 문예체 교육 강화

‘홍수저물모델’ 홍준표



공약 아동수당 - 초·중고생 월 15만 원(소득 하위 50%)

공약 온라인 수강 - 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공약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4차 산업혁명’ 내세운 안철수



선거권 만 18세 찬성

공약 교육부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 신설

공약 학제 개편 5(초) - 5(중) - 2(진로 탐색·직업학교) - 4(대학)

공약 국가책임장학금 - 모든 학생이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

‘보수의 파격’ 유승민



선거권 만 18세 찬성

공약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교육부 교육복지 기능만

공약 고교 수강신청제·무학년제, 중등 자유학년제

공약 대입 단순화(학생부·수능·면접)

‘노동 대통령’ 심상정



선거권 만 18세 찬성

공약 초·중 무상급식, 고교 - 국립대 무상교육, 사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 책임학년제(한반 20명) 고교 무학년제(선택과목 중심)

공약 외고·자사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공약 직업고교 지원·확대,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특집] 19금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투표도 못하고 정책도 소외되고... 각 당 대선후보의 청소년 정책은?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전국이 대선 후보들의 선거 유세로 뜨겁다. 후보들의 공약은 이전과 달리 거창하고 실현하기 힘든 정책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세밀한 정책 위주로 구성되고 있다. 많은 공약들 중 청소년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들의 청소년 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대선 도전 선언 이전부터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는 명문대 입학에서 외고·자사고·국제고가 일반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는 고등학교에도 대학처럼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년별 수업이 아닌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학년 상관없이 수강하는 제도인 ‘무학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낡은 교육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신선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일부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교육 시스템이며, 단순히 타국의 교육 시스템을 들여오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입시를 현재보다 단순화하고, 수능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한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다르게 특목고·자사고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알려



졌다. 특목고·자사고의 폐지가 대학 입시 비율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수시의 강화를 주장했으며, 수시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를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특목고 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의 폐지 정책과 홍준표 후보의 존치 정책을 적절하게 혼합한 추천제를 제시했다. 또한 과학고·영재고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 또한 무학년제의 도입에 찬성하였으며, 입시를 간소화하고 수능을 단순한 자격 시험화 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외고와 자사고 폐지에 동의했다. 또한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수업

을 신청해 들을 수 있는 고교 수강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으며, 무학년제 도입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안철수 후보처럼 수능 자격시험 실시를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비슷하게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고교 무학년제 도입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등을 공약했으며, 입시간소화를 제시했다.

이밖에도 많은 후보들이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주장했으며 우리나라의 낡은 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선부른 정책도입은 오히려 새로운 시스템 적응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단계적이고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미래 선거제도개혁은 진짜 민주주의로 가는 길!

"기억해 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누군가 그랬어. 국민의 눈으로 국가의 최고권력자를 내러오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우리나라는 지난 겨울 정말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 내렸어.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뿌듯한 마음도 들었지.

이제 대선을 치르고 또 국민들의 눈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겠지. 정말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까? 그러나 핑크빛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애초에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시스템을 눈보는 것일지도 몰라!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지.

국민의 대표를 제대로 뽑는 방법은 간단해. 최대한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뽑히는 선거제도,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나라 역대대통령 사례를 보면 김영삼 42% 김대중 40.3% 노무현 48.8%, 이명박 48.7% 사실 반도 안 되는 득표율로 대통령이 됐다는 거야.

대통령은 딱 한자리니까 1등이 하는 것이 맞지만 1등도 다 같은 1등이 아니잖아. 그래서 선거에서 누구 한 명이 과반 득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2위 둘이 재대결해서 한번 더 민정당은 과정을 거치는 제도가 바로 결선투표제라는 거야.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1차 투표에서는 소신 있게 투표할 수 있고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며 2차 투표에서 차선의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사표를 방지하는 거지. 진짜 제대로 된 1등을 뽑자는 거야.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는 꼭 필요하겠지.

두 번째는 1등이 아니어도 괜찮은 선거제도가 필요해. 지금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뽑는 방법은 인구에 비례해 선거구를 잘게 쪼개서 그 선거구에서 1등 한 딱 한자

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등만 뽑히니 아무리 많은 표를 받아도 2등이면 썩어지. 다음기회가 와도 지난번 1등이 또 뽑힐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우리나라엔 특구지역을 기반으로 3년, 4년, 5년... 여러 번 해 먹는 국회의원들이 많아. 그래서 힘 빼고 영향력 있는 정당의 공천당이 곧 당선당처럼 여겨지기도 해.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어디에 충성하겠어?

그래서 쪼개 때 너무 잘게 말고 동등동등 쪼개는 대신 한 지역구에서 2등, 3등까지 당선되도록 선거제도를 고치는 제안이 있어. 그것이 바로 동등 선거구제야. 지역구가 넓으니 선거문도 하기엔 좀 썩겠지. 하지만 국민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는 건 틀림 없을 거야.

그런데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은 하나 더 있어. 선거를 하게 되면 앞에 드는 지역 민물을 띄고 나면 다른 한 장에선 앞에 드는 정당을 띄울 수 있지. 정당에 한 투표는 전국 모든 투표를 썩 모아서 썩 다음에 표를 받은 비율대로 정당마다 의석을 배분해. 그럼 각 정당은 투표전에 발표 해둔 비례대표 리스트에 따라 받은 의석만큼 칸 하고 당선자를 확정. 꽤 합리적이지? 문제는 비례대표가 너무 너무 적다는 거야.

지난 2016년 총선때는 국회의원 300석 중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로는 고작 47석. 사실 비례대표제도는 정말 중요한 제도거든. 지역구만이 없어서 지역에서는 이기기 힘든 작은 정당에게 기회를 주고 지역구원이 커버하지 못하는 전문분야를 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단 말이야. 진짜 내 처지에 따라 투표해서 나를 대표하는 누군가를 국회와 정부에 앉히고 내가 원하는 정책을 실현시킬 가능성을 높여줘.



지난 총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독일식 선거제도를 참고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 했었어.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수가 결정되고 그 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의 비율로 맞추는 한마디로 지나치게 지역인물주의인 지금방식에서 정당투표와 균형을 잡자는 제안이었지. 하지만 당시엔 새누리당의 결산반대로 비례대표가 확대되기는커녕 더 축소되어 버렸어.

선거제도에는 지금까지 말한 방법 말고도 여러 대안이 존재해 정당은 없으니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지. 결국 중요한 건 딱 한 가지.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국민의 대표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미래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해.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제도가 부실하거나 대의를 왜곡하고 있다면 절대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없다는 거야. 분명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문제가 없어! 1등 이외의 후보,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대의가 지워진 채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어. 그것이 어떻게 국민들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어.

말이야. 우리가 투표권을 가질 날에는 대한민국엔 적어도 결선투표제, 동등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어야 한다는 건.

[필동 편집국]

[19금을 찾아서] 청소년에게도 성생활은 권리?

교복입고 콘돔을 구입한다면?

왜 우린 안되요? 청소년과 콘돔

청소년들에게 성에 관련된 모든 것은 왠지 금기시되고 부적절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소년기에 성에 관해 올바른 인식과 공부야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순결을 강조하고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자체를 막고자 한다. 학교에서도 성교육은 요식적이고 청소년들과 성문제를 멀리 돌려 놓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19금을 찾아서편에서는 조금 재미있는 조사를 해 보았다. 아마도 청소년뿐 아니라 대부분의 어른들도 성과 관련된 것은 19금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사실 성관계를 19세부터 할 수 있거나 19세이하가 임신을 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 당연히 피임

도구의 구입 또한 19금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콘돔을 구입하려 하는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도 궁금했다.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권장할 순 없다. 남녀간의 성에는 순수한 사랑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을 막는다고 해결되진 않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날로 성관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임신과 버려지는 아기들, 무분별한 낙태등이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속에서 청소년들의 콘돔구입여부는 우리사회의 청소년과 성을 바라보는 한 단면을 보여 줄 듯 하다.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의 콘돔 구매는 어려워

19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19세미만 나가기



청소년들이 콘돔과 같은 피임도구를 약국이나 편의점에 가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구매하기란 쉽지 않다. 만일 구입을 원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당연히 온라인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온라인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절차가 청소년들로서는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신용카드가 있는 것도, 공인인증서가 있는 것도, 계좌도 있어야 하고 송금도 그리 간단치가 않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나 홈쇼핑사이트는 피임도구에 대한 검색뿐 아니라 구입자체를 19금으로 막아 놓고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 실제 '콘돔'은 일반품목임에도 불구하고 19금으로 청소년에게는 실제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그 외의 다른 피임도구 또한 금지 되어있다. 결국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는 청소년들이 콘돔을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 참에 알아보는 콘돔 상식!!

우리기업 세계 콘돔시장 점유율 1위

대표적인 콘돔 회사로는 유니더스라는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국내 시장 점유율 65%, 세계 시장 점유율 30%를 기록하며 지금 세계 1등을 달리고 있는 콘돔회사라는 것이다. 연간 3억3000만개의 콘돔을 생산하는 세계 1위 콘돔 생산업체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70%.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입찰에 부치는 세계시장 물량의 30%를 공급하고 있다.콘돔을 써본 사람이라면 한 번 짚은 유니더스의 제품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유니더스의 매출은 세계에서 70%, 국내에서 30% 정도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콘돔 사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OECD 국가중 우리나라의 콘돔 사용률은 최하위이다.

0.03과 0.02의 차이

동양인의 머리카락 두께는 보통 0.05~0.15밀리미터 범위 내에 있다. 인간 세포의 평균적인 지름은 0.03밀리미터다. 들여다보기 위해서 현미경을 써야 한다. 그보다 얇은 0.02밀리미터라면 도무지 감을 잡기 어려운 숫자지만, 콘돔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 요즘 웬만한 편의점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콘돔에는 '0.03'이란 숫

자가 크게 쓰여 있다. 제품명이 곧 콘돔의 두께다.

잘 팔리는 콘돔은 얇다. 지금은 '0.02'까지 나와 있고, 편의점이나 약국보다 한발 빠른 콘돔 전문 쇼핑몰에선 그게 가장 인기다. 0.03가 0.02가 되는 데는 무려 29년이 걸렸다. 콘돔의 주원료인 천연 라텍스로는 0.03이 한계라고 알려져 있다. 0.02밀리미터 콘돔은 폴리우레탄으로 만든다. 폴리우레탄은 라텍스보다 튼튼하다. 간혹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단점도 보완했다. 무엇보다 열전도가 뛰어나 체온이 가감 없이 전달된다. 그리고 투명하다. 둘둘 풀어놓고 바람을 넣어보면 비눗방울을 길게 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편 0.03, 0.02이라는 숫자나 콘돔을 응용한 기발한 발상이라면 눈이 번쩍 뜨이지만, 보편적인 사이즈에 대한 얘기는 어쩐지 낯설다. 길이와 폭은 콘돔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조건인데도 그렇다. 콘돔 규격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뉘는데 한국에선 주로 중형이 팔린다. 폭은 각각 약 3밀리미터씩 차이 난다.

편의점 약국, 청소년 100% 콘돔 구입 가능해

그럼 오프라인에서는 어떨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19금을 찾아서' 팀은 직접 일반 약국이나 편의점을 방문하여 콘돔을 구입을 해보기로 했다. 청소년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교복을 입고 구입하는 것으로 실험에 임했다. 사실 주위의 시선 때문에 떨리기도 했고 교복입은 청소년들에게 쉽게 콘돔을 팔까?라는 생각이 많았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예상밖이었다. 온라인과는 다르게 방문한 모든 편의점과 약국이 자연스럽게 콘돔을 판매하였다. 오히려 손님이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하기위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듯 하였고 모두 일반적으로 피임기구를 사는 손님에 대한 대처 방법을 교육받은 듯이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안내해 주었다. 일부 경험이 많아 보이는 약사들은 자연스러운 웃음과 상품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해 주었다.

그 중에서 조금 불쾌한 내색을 하시는 한 약국의 지국하신 약사분께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느냐 물었다. 그러자 약사 분은 개인적

<콘돔 구입 내용>

장 소	판매자	결 과	행 동
상대동 gs25	젊은 여성 2명	O	아무말지 않게 안내해 주고 하던 이야기를 계속 나눔
상대동 00약국	충년 남성 약사	O	여면 제품이 잘 팔리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줌
옥봉동 00마트	충년 남성	O	아무말지 않게 안내해 줌
상대동 gs25	충년 여성	O	당황한 듯 되묻고 아무말지 않게 안내해 줌
상대동 00약국	충년 남성 약사	O	아무말지 않게 안내해 줌
상대동 00약국	충년 남성 약사	O	전혀 안 안내해 줌
상대동 00약국	충년 남성 약사	O	종지 않은 표정을 지으시고 아무말지 않게 안내해 줌

청소년전용 콘돔 자판기 여러분의 생각은?

'성추행과 미용품은 16세 때 부모님 허락받고 서로 사랑했는데 왜 우린 안 돼요?'

당돌한 청소년의 질문 앞에 진땀 빼는 선생님만큼이나 성숙한 청소년의 사랑은 편의점 콘돔구매에서부터 난관을 맞고, 방비 없이 치러낸 사랑의 순간은 두 줄 테스트기를 통해 재앙으로 다가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조사한 19세 미만 청소년 분만·유산 통계에 따르면 분만 인원은 1,891명, 유산 인원은 338명으로 조사기간 내 청소년 2,229명이 임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출산을 저하를 놓고 고심하는 사이 늘어나는 비자발적 미혼모 중 미성년자 비율이 절반이 넘어가는 기형적 상황에서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가 등장해 화제다. 청소년의 콘돔 구매가 법과 무관하게 불법적으로 비치며, 당사자는 공상 문란하고 방종한 일탈 학생으로 규정당하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이 자판기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섹스 권장이 아니라 피임 예방이 목적

사회적 기업 인스팅티스는 최근 서울 신논현과 이태원, 광주 충장로와 충남 홍성까지 총 4곳에 청소년 전용 콘돔자판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과거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매달 2개씩 콘돔을 보내주는 '프렌치 레터' 프로젝트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이 회사는 청소년의 콘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판기를 설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콘돔 접근성이 높아지면 섹스를 권장하게 된다는 우려 섞인 반대 목소리로 나왔는데, 당장 주요 포털 사이트에 청소년 임신을 검색하면 콘돔을 구하지 못해 비닐봉지, 랩으로 응급처치(?)했다는 사연부터 미처 피임하지 못해 임신 공포에 사로잡힌 고민 상담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더 많은 장소에서 보편적으로 콘돔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OECD 가입국 중 한 해 35만 건으로 낙태율 1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역으로 피임실천율은 하위권에 머무르며 성문화 인식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비자발적 미혼모와 청소년 불법 낙태는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 전용 콘돔 판매기의 등장은 여러 문제와 해답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5년 '특수형 콘돔'을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소년 판매를 규제한 바 있는데, 답보상태에 머무른 청소년 성문화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문화 노출을 통해 너무도 빠르게 본질에 근접하는 청소년의 실제 성문화 사이의 갈등을 놓고 정부 정책보다 한발 앞선 민간의 노력이 더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NS 뜨거운감자]

SNS 새로운 소통문화 ‘진주익명고백’

고백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 유출 조심해야

익명고백페이지란 트위터 혹은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 제보를 익명으로 올려주는 페이지를 말한다. SNS 상의 익명고백의 시초는 서울대학교 대나무 숲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어 연세대, 고려대로 점점 퍼져 다른 대학교들도 대나무 숲이라는 익명고백 페이지를 개설하여 대학생들 간의 소통창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만 익명고백을 이용하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대학교에 대나무 숲이 있다면 진주에는 '진익고'가 있다. 진익고는 '진주익명고백'의 준말로 페이지를 팔로우하면 페이지에서 게시하는 게시글을 모두 볼 수 있다.

진주시민 중 약 2만 명이 진익고 페이지를 팔로우 했다. 즉 2만 명이 진익고에서 올라오는 게시물을 본다는 뜻이다. 그만큼 진익고 페이지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진주시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만큼 진익고에 대한 궁금증도 많을 것이다. 진주익명고백 페이지의 총 관리자인 김준수씨와의 인터뷰시간을 가졌다.

Q. 진주 익명 고백이라는 페이지를 왜 만들게 되셨나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도 익명고백 페이지가 존재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소통창이 되어주는 걸 보고 저도 그런 일을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진주익명고백'이 된 것 같아요.

Q. 페이지의 관리자는 몇 명 정도인가요?
관리자는 대체적으로 저의 지인이고, 필요할 경우 선발하여 2~4명 정도가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라고 해서 달리 특별하거나 엄청난 능력을 갖춰야하는 건 아니지만 페이지 특성상 자신이 관리자라는 것이 주변에게 알려지면 안 되겠죠. 또한 성실함이 기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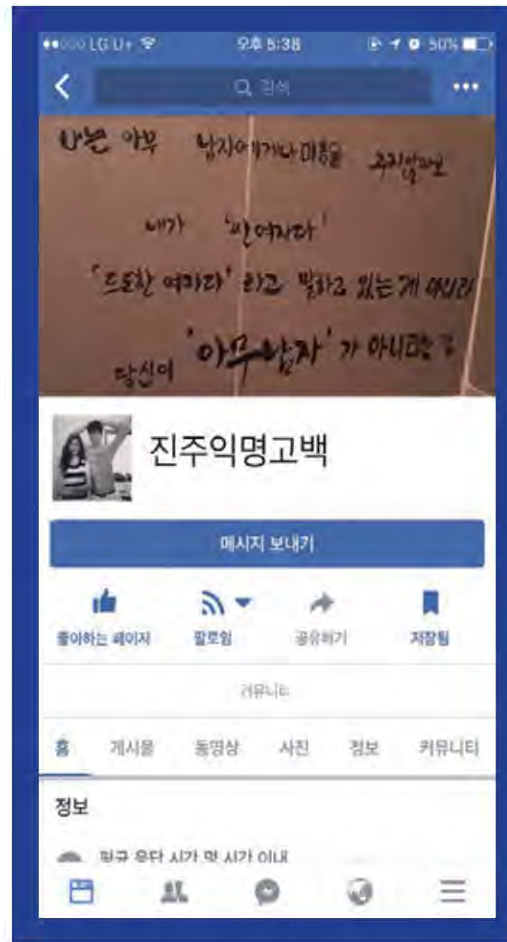
Q. 익명고백을 선별하기도 하나요? 기준이 있나요?
물론 선별합니다. 비방이 섞인 글이나 자극적인 것은 선별해서 배제하고 올립니다.

Q. 어떤 종류의 익명 고백이 가장 많은가요?
사랑 고백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안면이 있고 이름을 아는 학생에게 호감을 드러내는 경우, 우연히 마주친 사람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애

인의 유무를 묻거나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죠. 여긴 메이플스토리의 자유시장이 아닌데 말이죠. ㅎㅎ

Q. 진주 익명고백만의 특징은?
익명 고백 페이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생겨났지만 오랫동안 활성화되어 진주 사람들의 소통창이 되어주고 있다는 점이 나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익명고백 페이지지만 익명고백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 기타 여행리뷰, 맛집리뷰 등도 보내주시면 태그 걸어서 알려 드릴테니 유용한 정보 알고 계신다면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익명고백(대나무숲)은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은 실명으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익명고백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점과 페이지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간의 소통창이 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우리는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고백이라는 창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현명한 학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나무숲?



대나무 숲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에서 유래하였다.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한 SNS 페이지 '대나무숲'이 대학생들의 '디지털 야고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나무숲은 지난 2013년 11월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을 시작으로 현재 100여곳 이상의 대학에서 운영 중인 SNS 익명 네트워크다. 익명이 철저히 보장돼 같은 대학 학생끼리도 운영자가 누군지 모른다.

"O월 O일 O시 O분 쫘 O번 버스타고 학교 후문에서 내리신 분 누군지 궁금합니다! 제 이상형이셔서 여자친구 없으시면 한 번 만나보고 싶어요."

"항상 맨 앞자리에서 O교수님 수업 들으시는 여성 분. 남자친구 있나요? 너무 예쁘셔서 계속 쳐다봤는데." 새학기를 맞아 각 대학교의 익명 페이스북 커뮤니티 '대나무숲'에는 마음에 드는 아성을 찾는 글이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익명 고백'은 간단하다. 학생들이 대나무숲에 고백 내용을 제보하면 대나무숲은 규정에 어긋나는 일부 제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취합해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다. 대나무숲에 고백 글이 올라오면 재학생들은 댓글에서 고백 글의 주인공으로 의심되는 지인들의 이름을 태그한다. 가끔 엉뚱한 사람을 짚는 경우도 있지만, 익명의 제보

자가 원하던 인물을 정확히 찾아내기도 한다. 이러한 탓에 대나무숲은 사람을 찾아준다는 의미에서 '홍신소'라고도 불린다.

대나무숲 글은 누군가의 신상을 허락 없이 노출하는 행위이고,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제보자는 익명을 보장받지만 고백의 대상자는 실명, 작업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개인의 신상정보를 함부로 올리는 것은 대상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취재/한현지(경해여고2)기자]

[기고] 학교에서 바라 본 세상

<학생답지 못한 글> '학생다움'의 억압에 대해

우리는 일상에서 학생다움을 강요당한다. "학생다운 옷차림", "학생다운 말투", "학생의 본분"…… 도대체 여기서 '학생다움'은 무엇일까. 옆머리와 뒷머리를 짧게 쳐올리고 앞머리는 우스꽝스럽게 삐죽거리는 '스포츠머리'와 귀밑 7cm의 단발머리(그보다 길면 고무줄로 머리를 묶어야 하는)는 왜 학생다운 것으로 여겨질까. 어른들이 말하듯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며, 학생은 외모를 꾸며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면, 획일화된 '스포츠머리'와 '단발머리'는 과연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걸까. (심지어 '스포츠머리'의 이름은 '스포츠'머리이다! '스티디'머리가 아니라!)

'학생다움'은 어른들이 원하는 학생의 모범적인 모습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 말들은 우리를 기성세대의 취향에 맞는 학생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어른들의 칭찬과 벌, 때로는 법과 제도의 장치가 우리를 학생답게 만들기 위해 작동하고 있다.

학교에서 우리는 펄럭거리는 통바지와 무릎 밑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강요당하고,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따지는 말투는 학생답지 못한 것으로 여겨져 훈계의 대상이 된다. 화장으로 자신의 외모를 꾸밀 수 없고, 피어싱과 목걸이를 통해 개성을 표하는 것조차 금지된다. 비청소년(성인, 어른)의 것으로 여겨지는 술과 담배, 섹스를 하는 학생은 '비행청소년'과 '불량학생'으로 낙인찍힌다.

'학생답지 못함'을 근거로 하는 앞의 규제들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의 머리카락과 복장을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남성의 표준'과 '여성의 표준'을 만들

어 획일화하여 규제한다. 이러한 표준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 만약 옳다면, 그 도덕적으로 옳은 '표준'은 누가 정하는 걸까. 아니 도대체 누가 사람의 외모에 도덕적 가치를 매겨 표준을 정할 수 있을까. 조금만 살펴봐도 학생 외모규제에 도덕적 판단 따위는 들어있지 않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저 사회와 학교가 어른의 시선에 단정해 보이고 소위 '모범생'처럼 보이는 머리카락과 복장을 모든 학생에게 강요하는 일일 뿐이다. 이는 어른의 취향에 알맞은 모습으로 학생을 코르페시시키는 것과 다를없다. 복장과 외모에 대한 규제는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엄연히 침해하지만, 일부 학교들은 청소년의 개성표현은 어른들 보기에 아니꼽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술과 담배는 또 어떤가. 술과 담배가 몸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청소년에게 금지한다면, 간 질환 환자나 폐 질환 환자에게 각각 술과 담배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국가는 무책임하다고 말해야 한다. 유독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이 법률은 모순적이기도 하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고, 학교가 이를 처벌하게 하는 사회와 국가는 진정 청소년의 건강을 우려하기 때문일까? 앞의 간 질환, 폐 질환 환자 예시를 통해 술담배는 어른의 것이라는 청소년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관념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술담배를 하는 학생을 불량학생으로 낙인찍어 징계를 주고, 벌하려는 학교는 '학생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일까, 학교 외부의 어른들에게 보이는 '학교의 이미지'가 나빠질지를 걱정하는 것일까?

어느 한쪽만이 정당일 수는 없지만, 금연을 위한 여러 도움 프로그램보다는 징계와 벌주기에 초점이 맞춰진 지금의 학교 흡연규제는 후자의 이유가 더 큼을 논하지 뒷받침해준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우리에게 적용되는 억압과 폭력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청소년이며 학생이라는 이유로 모든 규제와 억압이 쉽사리 용납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은 입시 또는 주어진 본분(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현재의 행복과 쾌락을 미래로 미루어야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관념은 규칙으로 만들어져, 학생의 본분에 방해가 되는 여러 '기분 좋은' 일을 금지한다. 외모와 복장을 통해 자신을 꾸미는 일, 연애, 술과 담배, 섹스 등 입시(또는 그 외의 본분)를 제외한 모든 일은 '학생답지 못한 일'이 되어 금지된다.

이밖에도 그저 학생이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권리 억압은 수없이 많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에게 가해지던 규제와 억압들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육적 필요라며 행해지는 여러 규제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규제들이 사실은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과 같은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비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내 글이 불편하게 다가온다면, '학생다움'이라는 어른의 관념과 시선을 내면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학생다운 학생', '모범생'이 되려고 자신을 어른들의 시선과 틀 속에 우겨넣고 있지는 않았는지



지 한번 되돌아보자. 또, 어른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개성을 표현하고 자신의 권리를 맘껏 행사하는 멋진 학생들을 '학생이 머리를 저렇게 해도 되나'며 비난하지는 않았는지도 고민해보자. 우리의 이런 사소한 고민과 불편함이 모여 세상과 학교를 변화시킨다.

학생답지 않게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하며,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하고, 현재 나의 행복과 쾌락을 맘껏 추구할 수 있는 세상, 우리와 자유와 권리를 학생답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지 않는 학교, 그리고 나의 이런 글이 '학생답지 못한 것'이 아니며, 더는 이런 글을 쓸 필요조차 없는 세상. 나는 이런 세상과 학교를 간절히 꿈꾸고 바란다.

마지막으로 강렬하고 통쾌한 문구를 하나 소개하며 글을 마친다. "학생답지 않으면 기분이 조크든요(송겨든요)"

글쓴이/ 박태영은 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 바보화>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입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 글을 쓰는 글쟁이이기도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뜻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에게서는 카카오톡(박태영 ID:hexafame)으로 연락 주세요!

[학교VS학교] 남고와 남녀공학 학교 안을 들여다 보다

초전동 명신고 VS 충무공동 진양고

우리지역 각 학교의 모든 것을 하나씩 비교해보는 공간입니다. 교문, 화장실 같은 시설뿐 아니라 일립종소리에서 교칙까지 재미있는 각 학교만의 특색과 차이를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남학교인 명신고와 남녀공학인 진양고속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학교와 비교해 봅시다.



교문



명신고는 초전동, 진양고는 충무공동에 위치해 있다. 두 학교 다 학교 주위 풍경은 엇비슷하다. 아직 학교 주변이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 아니라 조금은 쓸렁하다. 교문의 형태도 비슷하다. 등교시간은 명신고는 1,2학년 8시, 3학년 7시 40분이고 진양고가 학년 상관없이 8시 10분으로 명신고가 더 이른 시간이다. 진양고는 혁신도시내에 신축되어 아직 교통편이 좋지 않아 학생들이 등하교에 불편함이 많다. 따로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름표



특이하게 따로 이름표는 없고 교복에 옷감 재질로 사각 이름표를 박음질해 부착하게 되어 있음

급식



중식, 석식 3500원

급식



중식, 석식 3700원 (2,3학년 중식 무료)

이름표



아크릴로 되어 있고 학년마다 색깔로 구분된다.(1학년- 파란색, 2학년 - 초록색, 3학년 - 노란색)

교복



교복 입지 않는 몇 안되는 학교에서 최근에 교복이 생겼고, 선이 잘 활용된 것 같다.

체육복



초록색이라고 말하자니 애매한 색이다.

체육복



이름표와 마찬가지로 학년마다 다르다. 2017년 1학년 기준으로 통일됨. 1학년 - 남색, 2학년 - 초록색이라고 말하자니 애매한 색(명신고 체육복과 거의 동일하다. 2학년을 사이에서는 백수핏이라고 불린다.) 3학년 - 하늘색

교복



2~3학년은 기존의 남, 여교복이 따로 있고 1학년부터는 사진과 같은 교복으로 앞으로 통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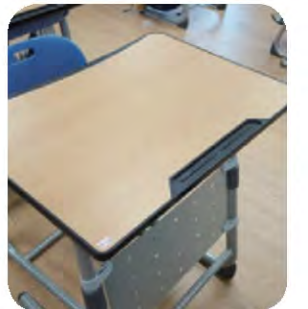
책걸상



명신고는 일반적인 나무책상과 의자를 쓴다. 진양고는 학교를 옮기면서 학생들의 투표를 받아 책상과 의자를 결정했다. 여름에 불편한 여학생들을 위해 책상마다 책상가림판도 설치되어 있다.

교실 칠판

명신고의 이전 칠판은 분필가루 때문에 학생들의 눈과 기관지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 보드판 형식으로 바꿨다. 진양고는 신축학교답게 전자 칠판이 설치되어 있다. 터치스크린으로 처음엔 어색해하던 선생님들도 요즘은 잘 사용하고 있다.



신발장



신발장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나무 칸이다. 이에 비하여 진양고는 건물 입구에 신발장이 놓여있는데 각 칸마다 임호를 설정할 수 있어 신발의 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귀찮다는 의견도 많다.

식수대

명신고와 진양고의 식수대는 거의 동일하고 색깔만 다르다.



교내 매점

교내 매점은 두 학교 모두 없다. 명신고는 작년까지는 학생동아리에서 아침, 점심, 저녁 총 3번에 걸쳐 매점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빵, 음료수 자판기로 모두 바뀌었다. 아이스크림도 판매한다. 진양고 학생들은 학교 앞 편의점으로 달려가야 한다.



남고와 남녀공학에 대한 이미지

남고를 바라보는 진양고?

A양 : 으흠... B양: 수컷들의 집합체!!! C양 : 막 운동하다가 비오면 옷땀 났고 축구하는 모습?! 모여들어서 축구공대를 쓰러트리려는 활발함일까?

남녀공학을 바라보는 명신고?

A군: 서로 수줍수줍하다가 커플 탄생...? B군: 선생님 말고 여자가 있는 게 신기할 것 같다, 행동이 조심스러워 질 듯!

[맏칸년맏반] 진주제일여고 2학년7반 편

뚝뚝하면 누가 재미없다고 해? 매력둥이들 집합소 2학년 7반, 한번 보고가~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다면 경기도 오산? 어딜 가도 이렇게 지성과 매력을 두루 갖춘 반은 없다! 같은 반이 되지 불과 두 달이지만 제일여고 2학년 7반, 그 특색 있는 친구들이 만들어 내는 즐거움과 단합의 조화는 제일여고를 떠나서 진주시 내 어느 반에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제일여고 2학년 중 '청암반' 학생 최다 보유 학급으로, 뇌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와 얼굴도 모두 예쁜 친구들이 모인 반이다. 공부도 외모도 매력도 재미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을 매력둥이들의 집합소. 반짝반짝 빛나는 맏칸년 맏반, 진주제일여고 2학년 7반을 소개합니다.



우리들의 이상형을 공개합니다

번호	이름	이상형^^	하고 싶은 말
1	강채영	햇바디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 까 더 보고 싶다
2	권보배	보편적이지만 희귀한 사람	너희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3	김수연	게임 잘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뱃살 많은 남자	너무 야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밍다
4	김예진	바로 너♥	이제 얼굴 한 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5	김주원	문과인데 물리 잘 하는 사람	여긴 온통 겨울 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6	김현주	사쿠라이 쇼	마음은 시간을 달려 가네 홀로 남은 설국열차
7	마민경	도경수, 목소리가 낮고 얼굴이 귀여운데 잘생긴 남자	니 손 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이 겨울을 보내고파
8	문지현	김지윤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9	박정언	곰(단, 겨울잠 제외)	그 봄날이 올까 Friend
10	박해미	송곳니가 뽀족하고 목젓이 색취하고 귀여운 남자	하공을 떠도는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11	배소현	운동 잘하는 남자	조금 더 빨리 네게 닿을 수 있을 텐데
12	손규현	김남준+임시완+정승환. 생각이 깊고 일할 때 멋있는 남자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13	송보민	수학문제 풀 때 눈빛이 착시한 남자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새워야
14	심가원	목소리가 좋은 남자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15	유지현	내가 25세일 때 미중년인 남자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16	윤예진	예체능 하는데 전교 1등인 남자	꽃 피을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17	이은진	곰돌이 푸우	그래 밍다 나가 던 떠났지만
18	이정은	이과인데 사문 잘 하는 사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지 난
19	이지현	베이비 페이스를 하고 형광등을 가는데 셔츠사이로 핏줄 보이는 남자	솔직히 보고 싶는데 이만 너를 지울게
20	정귀임	스투키 잘 키우는 남자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21	정다현	착하고 목소리 좋은 반반하게 생긴 남자	시린 널 불러내 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22	정수정	내 남친♥	말로는 지운다 해도
23	정의순	♥경해여고 2학년 5반 담임선생님♥	사실 난 아직 널 보내지 못하는데
24	지정민	아킬레스건이 착시한 남자	벗꽃이 피나봐요. 이 겨울도 끝이 나요
25	최다솔	나에게 marry me를 불러줄 수 있는 남자.	애들이 1년동안 같이 잘 지내보자~
26	하나연	하나연 좋아 하나연 그림 너♥	보고 싶다. 조금만 기다리면
27	하유진	바둑 둘 때 손이 이쁜 사람	며칠 밤만 더 새우면
28	황예진	내 눈에 잘생긴 남자 + 웃긴 남자	만나러 갈게, 데리러 갈게.

우리반 담임선생님



작년에 처음 제일여고에 오셔서 올해 두 번째 담임을 맡으신 영어 담당 정의균 선생님. 항상 많은 업무에 시달리시지만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챙겨 주시려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 외모와는 다르게(?) 열정적이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영어 스킬을 아낌없이 나눠주려 애쓰시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제일여고에서 정의균 선생님의 방과 후 신청은 몇 초 만에 마감될 정도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최고다. 2학년 7반에 딱 어울리는 매력둥이 선생님이다.

우리반의 Top3

안경의 비포애프터 차이?

1.강채영 2.최다솔 3.마민경

체육복을 사랑하는 그녀?

1.김예진 2.최다솔 3.그외 25명

종이 인형?

1.김현주 2.정귀임 3.문지현

우리반의 멋진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김수현 키순으로 앞에서 일등 하는 7반의 아기새다. 정말 작고 연약한 이미지다. 안으면 부서질 것 같은 귀여운 얼굴로 오버워치 만능꾼 올라운드라 자칭한다. 자신의 셀카 빼고는 모두 잘 찍는 만능 손이다. 수학여행에서 처음 팀을 이끌며 나가는 멋진 모습으로 원피스를 입었는데 비습까지 보여 준 믿음직한 친구다.



마민경 울때 안 울고 웃으면 울어버려서 주변을 당황시킨다. 학용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학용품만 발하는 줄 알았는데 그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줬다. 조별과제를 할 때 외외의 리더쉽으로 팀을 이끌어 나가는 멋진 모습까지 보여 준 믿음직한 친구다.



김주원 항상 친구들의 말에 반응을 잘해주는 7반의 대표 리액션 우먼이다. 항상 짝지개를 깨워주고는 자기가 잔다. 학교에서는 언제나 뒤로 묶는 똥머리가 착시하기만 하다. 얼굴만 보면 썬 언니네 의외로 한자를 잘 외우는 선비일진 같은 느낌이다.



손규현 온갖 다양한 학문에 조예가 깊고 모의고사가 300이 나오는 제일여고의 천재다. 천재라고 하면 겸손해 하는 데 평소 하는 개드립을 보면 뇌가 겸손한 것 같기도 하다. 방탄 광팬으로 덕질한다고 후대 폰만 보는 거 같은데, 이토록 신은 불공평하다. 7반 대표 사진작가로 신은 그녀에게 모든걸 주셨다! !



황예진 한자를 배우더니 사자성어를 생활화 하며 능수능란하게 구사한다. 축구할 때 대놓고 선생님을 건어차는 대범함을 가지고 있지만 말투가 곰과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거의 상성이 급이 된다. 어떤 수업시간이든지 절대로 졸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매우 의외이다.



유지현 친구들에게 "첫 인상은 안 그런데 왜그래.." 라는 말을 듣는 여러 의미를 가진 7반의 닥스훈트다. 자신은 책상위가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책 쌓인걸 보면 책상인지 사물함인지 문간이 가질 않는다. 항상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착한 친구다.^^



최다솔 자칭 타칭(?) 2학년 대표미녀다. 항상 선생님들에게 군대식 말투를 쓰는데 중독성 있어서 따라하게 된다. 언제나 남을 배려해주는 나가버리는 수준급의 배려심을 가지고 있다. 겉모습은 매우 개러하지만 우리반에서 힘과 카리스마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운동할 때 무서워진다. 사실 단일후보 었다는 건 비밀이다.



강채영 반장들 중에 제일 이쁜 7반의 반장이다. 기침감기로 고생하던 중 기침이 심하면 자리를 박차고 교실밖으로 나가버리는 수준급의 배려심을 가지고 있다. 겉모습은 매우 개러하지만 우리반에서 힘과 카리스마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운동할 때 무서워진다. 사실 단일후보 었다는 건 비밀이다.



하나연 얼굴 찌푸리는 표정조차도 보지 않는 것 같은 7반의 비타민이다. 말투에 사랑스러움이 묻어 나오는데 매력 덩어리다. 첫인상은 일진인데 엄청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교실에서 교복을 갈아입을 때면 자신이 보지 않을 것이라 확실한 믿음이 느껴진다.



심가원 수업 잘 듣다가도 돌아보면 자고 있는 우리 반 잠자는 숲속의 그녀다. 자면서 꿈속에 뭘 자꾸 뇌우고 있는건지, 맨날 물건을 잃어버린다. 먹는걸 매우 좋아하는 말처럼 매일같이 먹방을 연출하지만 믿기지 않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몸매를 자랑한다.



김예진 사는데 즐거운 7반의 부반장이다. 아주 가끔씩 부반장이라게 밍진다.^^ 우리반에서 가장 큰 눈의 소유자다. 한국인의 열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외국 배우처럼 이국적인 외모를 발산한다. 항상 얼굴엔 웃음기가 가득하고 이쁜말들로 주위를 즐겁게 한다.

[진주 역사투어] 솟대쟁이패를 아십니까?

솟대쟁이의 진주, 그래서 문화예술의 도시다

솟대쟁이, 우리가 몰랐던 소중한 역사

솟대쟁이패는 1800년대 전후로 진주지역을 본거지로 하여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활동한 전문예인집단을 일컫는다. 솟대쟁이패라고 하는 이 패거리들이 놀이판을 꾸릴 때 한가운데에 솟대와 같은 진 장대를 세운 뒤, 그 꼭대기로부터 양편으로 두 가닥씩 네 가닥의 줄을 늘어놓고 그 위에서 몇 가지 재주를 부린 데서 비롯된 것이다. 솟대쟁이패는 일명 솟대패라고도 한다.

솟대쟁이놀이는 1920~30년대에 활동한 4대 끈두식 이우문에 이르기까지 전승이 지속되었다. 대표되는 기예는 솟대타기, 쌍줄배기, 버나돌리기, 풍물(농악), 새미놀이(무동), 얼른(요술), 끈두질(살판), 오팡대(탈놀음), 병·신긔 등을 전문으로 하였다. 이는 바로 우리나라 교예단, 이른바 민속제기, 곡예, 서커스의 전신으로 여긴다. 또한, 경기도 지방의 남사당패와 쌍벽을 이루며 서로 교류가 잦았다. 솟대쟁이패는 박구놀이 가 특히 뛰어나 '경상도 박구놀이'를 전국적으로 알리며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이다.

솟대쟁이패들이 놀았던 각종 기예 가운데 풍물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인 '진주 삼천포 농악12차'로 남았고, 탈놀음은 경남도 무형문화재 제27호인 '진주오팡대' 등으로 전승되고 있다.

솟대쟁이놀이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황해도 원산 공연을 끝으로 사라졌다가 2013년 12월에 보존회가 발족하고 2015년 제38회 경남도민속예술축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복원됐다. 2016년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경남도 대표로 출전, 금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솟대쟁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5월 3일(수) 오후 2시 진주성 야외공연장, 5월 27일(토) 오후 9시 남강야외무대, 5월 28일(일) 진주성 야외공연장 오후 4시에 관람이 가능하다. 나들이 가기 좋은 5월인 만큼 우리의 전통 서커스, 그 속에 흐르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진주를 만끽하는 시간여행을 하는 것도 좋겠다.



[지상중계]

진주성 야외공연장. 솟대쟁이놀이 상설공연을 가다

#1. 길놀이



강한 햇빛이 내려쬰는 오후 2시 진주성에 풍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구수한 음악은 사람들을 불러 야외공연장으로 이끈다. 구경꾼들을 모으기 위해 행사장일대(예전엔 장터)나 주변을 돌며 펼치는 공연을 길놀이라고 한다.

#2. 당산굿

야외공연장 바닥 한가운데에는 기다란 장대가 꽃혀 있다. 공연을 시작하기 앞서 큰 느티나무에서 당산제를 지냈다. 당산제는 마을 입구에 있는 당산신에게 풍물패들이 놀이판을 벌인다는 것을 알리는 제사다.



#3. 닛전춤



북 치고 장구 치는 사람들이 종이인형을 들고 앞으로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춘다. 이는 닛전춤이라 하며 공연을 시작하기 전 선대 예인들의 넋을 위로하며 놀이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기원하는 퍼포먼스다. 종이인형의 표정이 무덤덤한 듯 하여 귀여워 보인다.

#4. 본판 화려한 풍물굿. 자반뒤집기



춤이 끝나고 능청스럽게 여러 관객들의 입담으로 공연이 시작된다. 죽방울놀이를 시작하기 전 관객끼리 나누는 대화를 일부 들어보면 이렇다. “어허이 이놈 관상을 보아하니 임진년 왜놈 조총맞아 죽은 족제비상이로세~ 아니 그 나저나 말이요 이 진주 땅이 살기가 좋기는 좋은 모양일세 저런 잡것들도 상투를 쓴 것을 보아하니 장가를 간 것이 분명하니” 죽방울을 머리에 얹은 관객이 답한다. “예헤이 상투아이다.” “상투가 아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나?” “아 요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단 말인가 자 그럼 잘들어 보시게에~”

#5. 죽방울놀이

높이 던진 죽방울을 가뿐히 받아내는 족제비 아저씨 장구모양의 죽방울을 등 뒤로 휘감아 넘기는 모습이 역동적이다.



#6. 버나놀이

버나놀이는 작은 막대기로 대접이나 첻바퀴, 대야 등을 돌린다. 부채를 이용해 그릇을 돌리기도 한다. 서커스로 친다면 접시돌리기라고 할 수 있다. 아슬아슬해 보여도 관객들은 능숙한 솜씨로 돌리고 던지고 받는다.



#7. 살판



바닥에 명석을 깔고 재주넘는 살판이다. 잘하면 살판 못하면 죽을판이라고 해서 나온 이름이라고 한다. 관객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훌륭한 재주를 뽐낸다.

#8. 얼른...



지금의 마술과 같다. 부채마술, 알낱기, 병아리낱기... 지금과는 달리 오래전에는 이런 해학적인 모습들이 더 자연스러웠었다 싶다. 얼른은 인간문화재인 김선옥 선생님께서 직접 공연했다.

#9. 솟대타기



솟대에 올라 여러 기예와 만담을 펼치는 마당... 매호씨의 재치도 돋보였습니다. 매호씨(노란옷)는 일종의 사회자 역할을 한다.

#10. 풍물판굿 대동놀이



모든 마당을 마무리하는 풍물판굿이 펼쳐지고 관객과 솟대쟁이 놀이꾼들이 함께 흥겹게 대동놀이를 공연을 끝낸다.

솟대쟁이놀이 보존회
김선옥(인간문화재) 회장과 잠깐 인터뷰

솟대쟁이를 알면 진주가 자랑스롭습니다

Q. 솟대쟁이를 왜 복원했나요?

A. 솟대쟁이는 우리 진주의 모든 문화를 총 망라한 것입니다. 솟대쟁이 속에는 진주오팡대가 들어있고 진주 농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솟대쟁이패가 일제강점기때 민족말살정책으로 사라지고 나서 부분적으로 지금 국가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국가문화재의 원 뿌리가 솟대쟁이입니다. 그래서 그 원뿌리를 찾기 위해 복원한 겁니다.

Q. 복원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 250~300년 전부터 연희되어왔던 것을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으로 1936년 황해도 원산공연을 마지막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원재 오래 되다 보니 자료가 부족하여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복원 발표는 2014년에 했지만 복원준비는 자료를 찾고 관련된 학자들을 모셔 2000년도 초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Q. 남사당패와 차이가 있다면?

A. 남사당은 외줄을 치고 솟대쟁이는 쌍줄을 칩니다. 그래서 남사당은 외줄백이라 하고 솟대쟁이는 쌍줄백이라고 하지요. 또 죽방울놀이와 얼른(조선마술)은 솟대쟁이만 가지고 있는 재주입니다.

Q. 앞으로의 바람은?

A. 솟대쟁이를 작년 문화재청에 국가문화재로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공연 자료 검토 후 승낙해서 아마 올해, 늦어도 내년 봄에 전문위원들이 솟대쟁이 문화재를 조사할 겁니다. 솟대쟁이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진주를 넘어 한국대표,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통하는 광대가 됐으면 합니다. 진주가 현재 민속예술 창의 도시로서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있으니 솟대쟁이가 진주를 대표하는 민속 예술이 되리라 봅니다.

반보드 enquete 남, 여학교 설문조사

진주고
2학년 8반



VS



진주여고
2학년 4반

Banboard

<필통 반보드 enquete>는 매월 남녀 고등학교 각 1개반을 선택하여 청소년이 관심 있는 분야의 설문조사를 해보는 코너입니다. 정확한 조사나 통계는 아니지만 요즘 청소년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남녀 학생들의 작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미니 설문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0명이 채 안 되는 1개반의

설문이므로 그 결과가 어떤 통계적 의미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이번 조사는 진주여고 2학년 4반 35명과 진주고 2학년 8반 25명에게 같은 질문의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과연 남학생과 여학생 각반의 결과는 어떻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성 볼 때 제일 먼저?

남학생	명	여학생	명
얼굴	16	얼굴	17
성격	6	키, 몸매	12
몸매	2	성격	5
기타(호감도)	1	기타(성격)	1

남,여학생들이 이성을 볼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될까? 남,여학생 모두 가장 많은 대답은 역시 얼굴이었다. 제일 먼저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답변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번째 많은 답은 남학생은 성격을, 여학생은 키와 몸매를 본다고 답해 서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사친, 여사친의 스킨십은 어디까지?

항 목	남학생	여학생
팔짱, 어깨동무까지	8(1위)	15(1위)
절대 아무것도 내 몸에 손대지마	6(2위)	5(3위)
손잡기까지	3 (공동 3 위)	7(2위)
포옹 정도까지	3	4(4위)
그 이상도	3	-
모르겠다	2(4위)	-

남사친, 여사친에 허용되는 스킨십은 어디까지로 생각할까? 일반적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스킨십에 더 적극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친구라는 전제하에서는 팔짱이나 어깨동무까지는 괜찮다는 답이 남,여학생 모두 가장 많았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남학생은 '손대지마' '포옹 이상도 가능'이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보였다.



나의 연애헌험은?

항 목	남학생	여학생
모태 솔로	14	16
1~2번	5	9
3~4번	4	6
그 이상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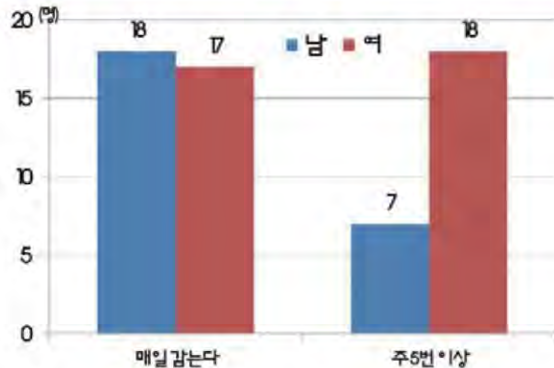
연애헌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남,여학생 모두 '모태솔로' 답변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아 현실적으로 이성교제가 어려운 학생들의 현실을 잘 반영해 주는 듯 했다. 눈에 띄는 것은 연애헌험이 5번이상이라는 '연애 박사' 수준의 답변도 4명이나 나왔다.

내가 좋아하는 여학교 or 남학교?

남학생	명	여학생	명
진주여고	14	대아고	27
경해여고	3	진고	4
제일여고	3	동명고	2
없다	5	명신고	2

남학교, 여학교 어떤 학교에 가장 큰 호감을 가지고 있을까? 진주고 학생들은 단연 압도적으로 진주여고를 꼽았다. 경해여고와 제일여고에 대한 지지도 있었지만 가까이 있는 진주여고 팬들이 훨씬 많았다. 반면 진주여고에서는 대아고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거의 몰표 수준이었고 그 뒤를 이어 진주고, 동명고, 명신고 순이었다.

일주일에 몇번 머리를 감는가?



두발규제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남학생들의 헤어스타일은 거의 스포츠형이다. 반면 여학생들은 긴머리다. 머리를 얼마나 자주 감을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에게 궁금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남학생들은 아침 세수할때 머리를 감는 것이 쉽기도 하고 일반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설문결과는 여학생들도 모두 머리를 매일 감거나 주 5회이상이라고 답해 남학생들의 의욕에 찬 시선을 끌끔히 거두게 만들었다.

주관식에는 어떤 대답들이 나왔을까요?

진주여고	진주고
당신의 18번 애창곡은 ? 딩크슌, 첫 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마지막 첫사랑, love yourself, 사랑 안해, 고무신 거꾸로 신지마, save me, 안아줘, 그냥 모든 차트가 내 애창곡, if you, 너의 모든 순간	널 사랑하지 않아, 서른 즈음에, 서쪽하늘, 공감, 어디에도, Marry me, 나만 안 되는 연애, 가질 수 없는 너, 넌 감동이었어, 다정하게 안녕히, 이미 슬픈 사랑, 소녀
이성이 제발 연애할 때 안했으면 하는 것은? 담배/ 향수 오지게 뿌리기/ 눈치 없는 행동/ 다른 여자와의 사적인 연락/ 가요킹/ 잘난 척/ 뒤끝 개쩜/ 게임한다고 연락 씌기/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집착/ 맨스플레인/ 거짓말/ 오토바이/ 학교 앞에 찾아오기/ 귀척/ 기념일 챙기기/ 남성 우월적 발언/ 땀가 바라는 것	남자가 항상 잘 해줄 거라는 착각/ 자기 감정 숨기기/ 이상한 것 물어보기/ 오빠~ 이거 사줘/ 사람많은 곳에서 과도한 애정행각/ 연애/ 여자관리/ 경험이 없다./ 같이 있을 때 폰질/ 연애가 뭐더라?.. 화장실 30분 넘게 가는 것/ 안해 봐서 모른다/ 다 받아 줄테니 연애하고 싶다/ 경험이 없어서.../ 연애를 해보아야 알지/ 화장 진하게 하기
남학생의 최고 골몰물은? 가요킹(침벨기, 오토바이, 육설), 억지 설렘 유발(연애를 글로 배웠나;;), 팔자걸음으로 허세부리기, 오토쿠, 술교장, 폴스키니, 자랑질, 가요, 여자친구와의 스킨십 떠벌떠벌, 여자를 물건 취급하는 남자, 이 여자 저여자 다 찢러보기, 여자를 평가하는 것.	담배피고 침벨기, 가요잡기, 거꾸, 어그로꾼, 물건 훔쳐가는 새끼, 고독워, 나대는 친구, 커피와 담배,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 잘 보이려고 나대는 사람, 발정난 놈, 교복바지를 스킨진진 처럼 입는 사람, 흡연자, 진지충, 착한 척하는 애, 담배 피는 것.



남녀 양자택일!



남학생은 사랑과 우정사이에서 고민중이네요 ^^ 반면 여학생들은 대부분 우정을 택합니다. 과연 진짜 나의 현실로 닮았을때 생각처럼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등하굣길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 과연 버스안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남, 여학생들이 뒤섞여 있는 버스안에서 서로를 얼마나 의식할까요? 결과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이성을 더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조금은 의외의 결과인듯 합니다.
고교시절 연애에 대해선 남,여 학생들 모두 대동단결 찬성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랑이 고된 우리 학생들의 아우성이 반영된 결과같아 마음이 찡하네요. 남녀공학이 적고 남고, 여고로 나뉘져 학교생활을 하다보니 이성교제의 기회가 많지 않은 것,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현실이 현실적으로 이성교제를 어렵게 하죠. 화려한 연애시대를 위해 힘들어도 조금만 참읍시다.

남사친, 여사친?



남사친, 여사친. 썸 타는 애매한 관계일수도 있는 친구들이다. 이성교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친구라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이성이 있다는 것은 권할 만하다. 그런데 절반 정도는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한다. 이성교제도 아닌 그냥 친구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 아닐까? 그런 친구도 만나기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는 현실이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다.

밤샘공부?



대신관리, 시험때문에 공부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학생들. 시험때면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워 합니다. 그다지 권할 것은 못되지만 밤샘공부 경험도 적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엔 절반 가까이 밤을 꼴딱 새고 공부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공부도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밤샘공부는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항상 아쉽고 후회 남는 시험 결과! 당신의 성적을 올려 줄 공부팁들을 공개한다

내신 1등급들이 추천하는 그들만의 공부법

내신 시험을 앞 두고 우왕좌왕하는 학생들의 모습들. 이제야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교과서를 펴고 펜을 잡은 학생들. 탐구과목 수업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마냥 외우자기 막막하기만 한. 그런 학생들에게 진주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1등급'들이 말하는 탐구과목 공부를 위한 소소하지만 실질적인 공부팁들을 소개하려 한다.

진주고등학교 A군 (2학년, 1~1 물리 1등급, 1~2 과학 한국사 등 탐구과목 다수 1등급)

A군이 소개하는 공부 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강을 활용하라. 학교 수업을 듣고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급하게 이해해야 한다면, 인강을 통해 개념을 재정립하고 모르는 부분을 채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강 듣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인강을 볼 때에는 그것을

'답지'라 생각하고 들어야 한다. 답지를 눈으로 기만 하고 이해 했다고 넘어가는 것은 학생들이 범하게 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다. 주의 깊게 듣고 내용을 곱씹으며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표를 만들어라. 대부분의 교과서는 소설책처럼 내용이 줄글로 전개되어 있다. 줄글로 전개된 글을 보고 중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기는 힘들 터, 파트별 개념을 정리한 표를 만드는 것이다. 그 후 칸을 비우고도 표의 빈칸을 모두 메울 수 있어야 한다. 메울 수 있다면 그 공부는 성공이다.

셋째, 문제를 풀어라. 배운 개념을 마냥 읽고 쓰고 외우는 것 보다는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이해력에 도움이 된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실제로 연습문제를 푼 학생들이 풀지 않은

학생들보다 이해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만큼 문제 풀이는 중요하다.

넷째, 파란 볼펜을 써라. 물론 볼펜의 선택은 개인적인 차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스펙트럼 파장 470nm 근처에 위치하는 파란색은 창조성을 높여주며 신경 안정과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진주고등학교 B군 (2학년, 1~1 과학 1등급, 평균 1.3등급)

B군은 자신이 다른 학생과 다른 것은 딱 한가지라 말하며 자신만의 필기법을 알려 주었다. B군은 필기를 할 때에 반드시 연필이나 샤프펜슬 등으로 작성한다고 한다. 절대 볼펜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수를 하면 수정을 해야 하고, 내용을 빠르게 적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 연필

로 적은 내용 위를 볼펜으로 따라 적는다고 한다. 필기 했던 내용을 다시 적으며 수업을 다시 떠올릴 수 있고 볼펜 아래 남은 연필자국을 지우면 필기도 깔끔해 보인다. 수업 내용을 온전히 머리로만 떠올리며 복습하는 것이 힘든 학생에게는 이 방법을 추천한다.

또 다른 추천 암기법 두 가지.

첫째, 시험을 쳐라. 책을 한 번 읽고 그 내용을 시험 본 그룹과, 책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은 그룹의 기억력을 비교하는 실험이 있었다. 실험 바로 직후에는 반복 읽기 그룹이 높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험 그룹이 더 내용을 잘 기억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 되었다. 본인만의 시험지를 만들고 꾸준히 테스트하면 더 빨리, 더 오래 가는 기억을 만들 수 있다.

둘째, 설명하려 해라.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그것을 설명 할 때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고 한다. 설명은 공부한 내용이 완전히 이해되어야 실행될 수 있는 작용이기 때문이다. 공부 이후 설명을 시도할 때 뇌에 막 들어온 내용들이 책장에 쌓이듯 차곡차곡 정리되고 단순암기를 통해 공부하는 것보다 설명을 시도 했을 때 개념들이 장기기억으로 전환되기가 훨씬 수월하다.

세상 어느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길 원하겠는가? 학교에 다닐 동안 어차피 공부를 해야 하고 그 결과는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말하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팁들로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기억과 이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공부는 전략이다. 좋은 전략을 얻은 당신, 도전해보지 않겠는가?

[취재/박승민(진주고2) 기자]

막차는 어디로 갔을까?

시간을 지키지 않는 버스, 피해는 왜 우리의 몫인가?

4월 6일, 9시 31분경 A씨는 291번 시내버스 막차를 타기 위해 중앙시장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 순간 눈앞에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배차 간격이 큰, 바로 그 291번 시내버스 두 대가 함께 지나가는 것이다. 잘못 봤나 눈을 몇 번이고 비벼대며 정류장으로 급하게 달려갔지만 역시나 다음 버스 정보는 없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291번 막차는 9시 43분에 중앙시장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었다. 시내버스와 시민들과의 약속은 그랬다. 이전에도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은 버스 탓에 막차를 놓친 경험이 잦았기 때문에 예정시간보다 20분 넘게 일찍 버스정류장으로 달려 나왔지만 같은 일이 생긴 것이다.

막차를 그렇게 떠나 보낸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내버스 위치를 확인해 보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무렇지 않듯 계속 진행 중이었다고 했다. A씨의 어머니는 "버스는 널 기다리지 않아, 네가 미리 나가서 기다려야지"라고 나무라듯 말씀하셨지만 약속을 어기고 25분을 일찍 떠나 버리는 막차를 타지 못한 것이 어떻게 A씨의 잘못이겠는가? A씨는 화나고 억울하기만 했다고 한다.

이처럼 정해진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는 시내버스 때문에 피해를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물론 시내지역에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할 확률은 무척 적다. 시내버스 운행 시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을 만큼 버스가 넉넉하게 다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차간격이 크고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시 외곽지역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시내버스가 끊기는 막차시간도 다른 버

스보다 1~2시간가량 일찍 시내가 아닌 변두리 지역에 거주 하는 학생들은 '강제 신데렐라'라는 별명까지 붙여진다. 일찍 끊어지는 막차시간도 야속한데 그 시간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제멋대로 먼저 출발해 가버린다면 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그런데 확인결과 버스가 많은 시내지역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시 40분에 출발해야 하는 버스가 같은 시간 무려 4정거장 지난 거리에 서 있었다. 버스 기사에게 이에 대해 따져 묻자 버스들끼리도 회사가 달라서 먼저 정류장에 도착해야 더 많은 손님을 태우고,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애들러 답했다. 결국 시민들과 약속한 버스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버스회사들의 돈벌이 계산

때문이라면 이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진주시청에 문의해 보았다. 시청 교통과 측에서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지난 4월6일 291번 버스의 경우는 운전기사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평소 배차시간과 운행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약속된 시간을 믿지 못하고 계속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시내버스는 학생들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일상과 다름 없다. 이렇게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한 피해를 받는 일상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다.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회사의 이익 때문에 멋대로 변경되면 안 되는 공공의 약속이란 것이다. 분명한 건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시민들



은 불신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진주시와 시내버스회사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취재/ 류채영(진양고2)기자]

등하굣길 쌓이는 쓰레기 버려지는 양심들

경해여고 길가에 몰래몰래 버린 쓰레기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경해여고 학생들이 날마다 만나는 풍경이 있다.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길가 인도 옆에 시선이 멈출 때면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진다. 바로 널부러진 각종 쓰레기들이 인도 옆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학교 주변이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들의 행렬은 우리 상상 이상의 모습들이다.

더욱 고개를 가로 젖게 만드는 것은 이들 쓰레기들의 원인이 대부분 등하굣길에 학생들이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들이라는 것이다. 하교하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간식을 사고 나온 쓰레기, 학교에서 미처 버리고 오지 못 한 쓰레기, 초코바 껌질, 아이스크림 껌질, 컵라면 용기, 먹다 남은 음료수와 음료수 캔들, 휴지, 물병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쓰레기들을 길가에 버리기 때문에 점점 쓰레

기들이 불어난 것이다. 심지어 인도에 유리 조각 파편도 곳곳에 버려져 있어 학생들이 크게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학생들의 생각이 궁금했다. 경해여중, 경해여고에 다니는 학생들 30여 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조사를 해보았다. 실제로 학생들이 하교하는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목격한 학생들이 많았다. 2/3가 넘는 학생들이 한 번씩은 누군가가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한 번 이상은 쓰레기를 버려 본 경험 있다고 얘기해 주었다. 조금 놀라운 결과지만 더 주목할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그다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쓰레기를 버릴 때 양심에 찔리기는 하

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이미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서 스스로 죄책감도 같이 버리게 된다는 학생들이 이야기다. 결국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지나는 학교 앞 길가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악취와 벌레까지 생기고 있다.

우리는 가끔 동네 주위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고 크게 붙여진 프랜카드 아래 각종 쓰레기들이 무단으로 투기, 방치된 것을 목격하곤 한다. 벌금을 내고 CCTV가 있다고 해도 오히려 그 프랜카드가 있는 곳에만 계속 쓰레기가 쌓인다. 휴가철 관광지나 피서지, 산과 계곡, 도심 공원에서조차 쓰레기로 몸살이라는 TV뉴스는 고정 레퍼토리처럼 주기적으로 흘러나오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이나 외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 한다. 어디를 가든,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구경할 수 없었다고 말이다.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배우는 학생들조차도 양심을 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학교앞에서 보란듯이 쓰레기를 버리는 우리들의 공중도덕 의식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쉽게 양심을 속이는 습관을 가진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골목 어느 프랜카드 밑에, 그리고 산과 계곡에도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하게 되지 않을까?

학교 등하굣길 방치된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학생들이 모두가 다시는 쓰레기를 몰래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깨끗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취재/ 이자은(경해여고1)기자]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경상대학과 원예학과를 찾아서

원예학과는 전망 밝은 미래 학문,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다양한 진로가 열린 곳

〈경상대 원예학과 3학년 한유경, 2학년 김근호선배를 만나다〉

Q1. 원예학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신다면?
원예학과는 여섯 가지 분야(채소, 조원, 육종, 화훼, 과수, 시설)의 실험실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연구, 실험하고 그것에 대한 학문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Q2. 원예학과 들어오게 된 계기?
식량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에 관해서 전망도 유망하고, 식물은 정신치유도 되고, 관련분야도 많고, 관광 면으로도 좋고 모든 면에서 관심이 갔어요.

Q3. 입학 후 이전과 달라진 생각이 있다면?
원예라고 하면 플로리스트, 꽃꽂이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대학엔 분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농협에서 일할 수도 있고, 연구직도 될 수 있고 분야가 다양해서 오히려 훨씬 더 좋았어요.

Q4. 대학에서 원예학과만의 특별한 점?
다른 과와 달리 직접 실험을 하면서 작물을 키우고 수확하고 또 직접 먹어본다는 점에서 색다르죠. 실습 분야처럼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하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더 많구요.

Q5. 원예학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커질까요?
많은 것들이 있죠. 분야별로 말하면 채소(야채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채소가 맞는 표현이랍니다) 분야는 기능성 채소를 실험, 육종해서 재배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시설 분야는 시설관리나 경영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고, 과수 분야는 블루베리나 감, 참다래 등등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과수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죠. 화훼 분야는 꽃

위주로 작업하고 작품을 만드는 법을 배우요, 작품 전시도 하고요. 육종 분야는 새로운 유전자 변형을 접목한다든지, 병에 강한 식물을 더 좋은 종자로 만드는 실험도 해요.

Q6. 분야가 여섯 가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부하고 선택하죠?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오면 교양과 여러 다른 수업을 같이 듣게 돼요. 전공은 한 두 가지를 듣고요. 2학년 때 본격적으로 학과의 모든 수업을 한 번씩 다 들어요. 거기에 듣고 싶은 과목을 추가해서 듣고요. 3학년 때 보통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대한 분야를 정해죠. 실험실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관련 공부를 따로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3, 4학년 때는 전공위주로 공부해요. 분야를 정하기 어렵다면 복합적으로 공부하기도 해요.

Q7. 실습위주의 수업을 하나요?
물론 강의수업이 더 많죠. 강의만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실험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수업하죠. 실습 비용으로 따로 내는 건 없어요. 경상대는 국립대잖아요. ^^ 등록금이 낮은 편이라 부담이 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실습비용은 한 학기에 십만 원 내외 정도예요.

Q8. 학과의 남녀 성비 비율은?
처음에는 여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병역 문제가 있으니까 보통 여성 비율 더 높은 것 같아요.

Q9. 졸업 후 진로는?
많죠. 공무원, 농협, 연구직, 영업직, 원예치료사, 도매업, 교사, 교수, 조경관리사.. 보통 모든 일에



원예학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건축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거의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어요.

Q10. 재학생이 보는 원예학과 전망?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모든 직업에 원예학과가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하면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Q11. 원예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조언?
분야가 많다보니까 각 분야마다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 채소 분야면 채소를 직접 키워보고 관찰해 본 경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작물을 키우기 위한 관찰력, 인내심과 실험을 위한 성실성, 적극성, 열정들이 필요해요.

Q12. 원예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과목이 있다면?
생물이나 화학 등의 과학이요, 수업 이해도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기초가 안 되어 있다면 대학 와서 관련 공부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영어도 과학 못지않게 중요해요. 전문용어들이 영어단어니까요. 영어로 된 교재도 있고요. 이과전공 학과 이긴 한데 문과학생이 교차에서 오기도 해요. 처음엔 수업을 잘 못 따라 가서 힘들어 하더 라구요.

Q14.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
남학생들은 입학 후 대학에 적응하고 자신의 목적을 빨리 파악한 후 군대에 빨리 다녀오는 것을 추천해요. 여학생들은 실험하고 실습하는 과정 중 육체적으로 힘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체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흠 만지고 비료 만지고 그런 것도 실험의 한 부분이므로 꺼리지 말아야 해요. 당장 싫다고 안하면 결국 자신만 손해니까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어도 자신이 감수해야 해요.



원예학과의 모든 것

원예학과란?

-원예작물의 생산에서 활용까지 전 과정을 배우는 학과이다.
-산림 및 원예 작물의 생산이나 관련 산업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자연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전문인력을 기르는 학과이다.

무엇을 배우는가?

-농업유전학 및 실험(생물의 변이와 기본원리, 실험품종육성)
-시설원예학(여러시설구조 및 환경관리등에 대한 기초지식,특수재배기술)
-식물영양 및 비료(무기이온의 흡수와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필수원소의 기준, 토양이나 식물체분석을 위한 무기이온의 균형 및 영양

상태의 진단)

-원예작물 생리학(식물체의 구성성분,환경에 대한 식물의 반응)
-원예학법론(원예작물의 분류, 작물의 형태 및 구조, 식물의 생장과 발육, 식물생장의 조절, 식물환경의 조절, 생물적 경합, 원예작물의 번식 및 개량)
-조경학원론

흥미와 적성

-평소에 나무나 채소와 같은 식물을 기르는 것에 관심이 많거나 기초 과학 분야에 흥미가 있다
-자연과학이나 환경 및 농림 분야에 적성이 있다.
-생물은 기본이고, 화학이나 물리와 같은 기초 과학 과목을 잘하면 유리하다.

졸업 후 진출분야

-기업체 : 자연 및 생태계 보호 업체, 펄프/지지 회사, 목재 회사, 생명공학 관련 벤처 기업, 나무 병원 등
-연구소 : 산림, 원예 관련 국가 연구소, 산림 및 원예 관련 민간 기업체 연구소
-정부 및 공공기관 : 정부의 농림업 및 농촌 관련 부서, 생태계 보호 관련 공기업

원예학과 개설 대학 현황

강원대 원예학과/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원예생명공학/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과/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원예학전공/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조경학전공/ 배재대학교 도시원예학전공/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원예생명공학/ 한경대학교



원예학전공/ 상지대학교 원예조경학전공/ 충북대학교 원예과학전공/ 공주대학교(예산캠퍼스) 원예학과/ 공주대학교(공주(신관)캠퍼스) 원예학과/ 나사렛대학교 플라워디자인학과/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환경원예학과/ 원광대학교 원예학전공/ 전북대학교 원예학전공/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 환경원예학과/ 대구가톨릭대학교(효성캠퍼스) 플라워 디자인학과/ 대구대학교(경산캠퍼스) 원예학과/ 안동대학교 원예육종학전공/ 영남대학교 원예학과/ 경상대학교 원예학전공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원예학과

[필통에게 물어봐] 궁금증 FACTCHECK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가끔씩 궁금증 앞에 선다.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면 내가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즉 팩트냐? 아니냐? 그것의 진위(참과 거짓 또는 진짜와 가짜를 통틀어 이르는 말)를 알고 싶어 하고 진짜를 찾기를 원한다. 우리 생활 속 그런 궁금증들은 필통이 하나 둘씩 물어 본다.



Q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진짜 의미?

이말은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이 한말로 아주 유명한 말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 과 다르다. 에디슨이 실제로 한말은 "Genius is one percent inspiration and ninety-nine percent perspiration" 해석하면 사람이 99% 노력해도 1%의 재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Q 고추에서 가장 매운 부분은 고추씨?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고추씨"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고추에서 가장 매운 부분은 씨가 붙어 있는 중심막이다. 이 막에는 고추 특유의 매운 맛을 내는 색깔도 냄새도 없는 화합물인 캡사이신이 최고 농도로 들어가 있다.



Q 어두운 곳에서 글을 읽으면 눈이 나빠진다?

어두운 곳에서 글을 읽으면 눈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이 말은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가 상한다는 말과 같다. 다시 말해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어두운 곳에서 글을 읽으면 눈이 피곤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기도 하겠지만 눈 자체가 상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안과 의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Q 마라톤이 42.195km인 이유?

우리는 대부분 마라톤이 왜 42.195km인 이유를 물으면 기원전 490년에 아테네 군이 페르시아 군을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그 거리를 달린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영국 왕실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1908년 런던에서 올림픽 열렸는데 마라톤 출발선은 윈저 궁 창밖에 지어졌다. 왕실의 절반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결승선은 화이트시티 경기장 귀빈석 바로 앞에 그려졌는데 왕실의 나머지 절반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거리가 42.195km이었고 이 거리가 표준화 되었다.



Q 고래는 물을 내뿜는다?

고래는 잠수할 때, 물이 아니라 공기를 공중으로 내뿜는다. 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올라올 때 좁은 숨구멍을 통해 강한 압력을 소모된 공기를 뿜어내는 것이다. 이 때 그 공기는 급속도로 팽창하게 되고 부피가 커짐으로써 공기 속에 들어 있는 수증기가 액화되어 안개 형태로 높이 뿜어질 정도로 급격히 냉각된다. 이 '물기둥'의 높이는 약 4m에 달하고, 향유고래의 경우 8m나 되며, 평균적으로 2초 정도 계속된다. 이 짧은 시간에 고래는 약 2000리터의 공기를 내뿜고 돌아오신다.



Q 영국에서 마녀나 마법사로 고발당한 사람들은 화형되었다?

우리는 중세시대에 마녀나 마법사로 몰리면 거의 화형으로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무죄 석방이 되었다 유죄 판결을 받아도 화형이 아니라 교수형을 당했다 실제로 영국에서 마녀로 화형을 당한사람은 1440년부터 1650년까지 겨우 100년당 1명 꼴이다.



Q 고양이는 쥐를 좋아한다?

고양이가 쥐를 즐겨 먹는다는 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고양이는 우선 가지고 놀기 위해서 쥐를 잡는다.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가 쥐를 잡아죽인 후에 먹는다는 것은 아니다. 고양이는 능력이 되면 토끼, 메뚜기, 지렁이를 훨씬 잘 먹고 죽은 쥐는 내버려두는 것이 보통이다.



Q 귀지는 먼지가 쌓여서 만들어진다?

귀지는 흔히 알고 있듯이 먼지가 쌓여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귀로 침입해오는 작은 기생동물들 막기 위해 4천 개에 달하는 귀지샘이 만들어낸 것으로 귀지는 쓴 맛이 나고 벌레들을 물리치는 성질을 갖고 있다.



[필통 꿀팁정보]

손가락 다쳤을 때 1회용 밴드 핵꿀팁

손가락을 다쳤을 경우 1회용 밴드를 이용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밴드를 감싸 붙일 때 곤란함을 겪은 경험을 한 두번쯤은 있을 겁니다. 상처부위가 들떠 제대로 안 붙을 경우도 많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주 떨어져서 밴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생활 꿀팁을 소개합니다.



손가락 상처가 손끝일 경우

- 1 흰 가제 부분을 제외한 밴드 양쪽을 반으로 자른다.
- 2 상처부위에 밴드를 댄다.
- 3 밴드의 갈라진 위쪽부터 X자로 감싸 붙인다.
- 4 아래쪽 갈라진 밴드부분도 똑같이 X로 겹쳐 감싸 붙인다.

상처가 손가락 관절 부위일 경우

- 1 밴드 양쪽을 흰 가제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이등분으로 자르고 상처난 손가락 관절 부위에 밴드를 댄다.
- 2 손가락 관절을 피해 아래 위쪽으로 땡겨서 X자로 감싸 붙인다.
- 3 손가락 관절을 구부려도 불편함이 없고 밴드가 이탈되거나 떨어지지 않는다.

*** 밴드 X붙이기는 손가락뿐 아니라 발가락 뒷꿈치등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타요?타요!] 진주시 시내버스 여행

등하교길 학생들로 꽉 찬 130번타고 끝까지!

대학교 4곳, 고등학교 5곳을 지나는 진주 대표 스쿨버스 노선

이번 필통의 새 코너 '타요?타요!'는 한마디로 진주의 시내버스 여행기다. 4월호에서는 내동면 진주시 공영차고지에서 이현동 대아고등학교로 가는 버스인 130번을 직접 타고 버스 밖 우리 동네의 모습과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SPEC 130번에 대해 알려주마!

- ◇편도소요시간 : 35분
- ◇첫차 : 05:39 마차 22:39
- ◇배차간격 : 6~7분
- ◇편도운행거리 : 10.6Km
- ◇운행인가대수 : 15대
- ◇노선 : 기점(공영차고지-경상대), 종점(대아중고-덕산아파트) 공영차고지 - 경상대학교 - 제일병원 - 중앙시장 - 진주여고 - 오죽광장 - 대아중고 - 덕산아파트
- ◇운행횟수 : 154회

INFO 진주 시내버스 요건 몰랐지?

- ◇진주에 시내버스는 몇 대?
인가된 차량 239대 (총 버스수 262)
삼성교통 88(98)대, 시민버스 73(80)대, 부산-부일교통 78(84)대.
- ◇시내버스 차종은?
현대 220/262대(83.97%), 자일대우 36/262대(13.74%), TGM 6/262대(2.29%)
- ◇시내버스들이 얼마나 오래된 걸까?
2016년식 72대/ 2015년식 24대/ 2014년식 22대/ 2013년식 25대/ 2012년식 23대/ 2011년 이전 96대 (2017년 2월26일 기준)
- ◇디젤버스 비율은?
90/262대, 34.35% (나머지는 모두 천연가스 버스)
- ◇자동차변속기 차량은?
218/262대 83.21% (저상버스는 26/262)
- ◇버스의 소요시간 측정기준 속도는?
도심구간 평균 20Km/h, 읍면구간 35Km/h

버스기사 잠깐 INTERVIEW

삼성교통 이영철 기사님
Q. 다른 노선과 비교했을 때 130번의 특징은?
A. 130번만 1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130번을 노선 길이는 짧는데 배차횟수가 다른 버스에 비해 많아요.(일반으로 7~8번이지만 130번은 11번) 그래서 다른 노선을 운행하는 것 보다 훨씬 쉬는 시간도 적고 힘이 많이 들죠.

Q. 노선개편 이후에 느끼시는 것은?
A. 어떤 상황에서든 배차 간격이 제일 신경 쓰이죠.



130번이 특성상 수요가 정말 많은 노선이라 거리 유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편되면서 뒷차와의 간격이 넓어져 항상 뒷차에 승객이 몰리지 않도록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Q. 다양한 승객 분들을 태우실텐데 기사님의 입장에서 승객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A. 일단, 승객 분들 중에 전화하거나, 핸드폰 보시거나 하면서 승차, 하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행동들은 자칫 잘못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정말 크거든요.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행동을 좀 빠르게 해주셔야 버스 운행이 정상적으로 되요. 나이드신 분들이 느리게 행동하시는 것은 이해되지만, 젊으신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승하차 해 주셨을 좋겠어요. 또, 전화를 할 때 조용히 해주셔야 기사도 운행에 집중할 수 있고 승객들도 편안하게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버스에서 전화는 조용히 해주세요.



130번, 학생들의 버스 이야기

노선상에 지나치는 학교가 많기에 항상 학생들로 넘치는 130번 버스. 130번 버스는 무려 4개 대학교(진주보건대, 경남과기대, 연암공대, 경상대(본캠퍼스/의학대학)), 5개 고등학교(사대부고, 진주고, 진주여고, 경진고, 대아고)에 대아중, 봉원중, 진주남중, 개양중을 비롯한 다수의 중학교를 지나친다. 특히 130번의 종점 바로 앞 정류장이 대아중고교이고, 등교시간에는 사대부고를 경유하는 기선을 운행하고 있어 대아고와 사대부고 학생들에게 130번 버스가 가지는 의미가 남 다를 수밖에 없다.

[사대부고 A군] 2학년 재학중, 진주중,고 근처 거주

방학때도 야자때도 사대부중, 부고에 버스를 보내주세요

"일반적으로는 10분정도 간격으로 130번 버스가 와요. 하지만 가끔씩 20분 정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다리는 학생들이 모일 수밖에 없 한 버스에 많은 사람이 많이 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등굣길이 좀 불편하죠."

"학기 중과는 다르게 방학 때는 130번이 학교 앞으로 운행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경상대 후문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거의 800미터를 걸어가야 하는데, 방학은 여름 아니면 겨울이잖아요. 여름에는 폭풍 짙어가고, 겨울에는 오돌오돌 떨면서 걸어가죠."

"제가 입학할 때 즈음에는 야자가 끝난 후에도 여러 대의 버스가 하교시간에 맞춰서



학교 앞을 지나갔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버스가 줄더니 이제 130번은 아예 안 오더라고요. 130번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많고 저도 130번을 타지 않으면 환승을 해야 하는데 환승을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130번이 안와서 아쉽습니다."

[대아고 B군] 2학년 재학중, 천전동 거주

제발! 학교 등하교길 배차간격을 좀 세심하게 만들어 주세요.

"130번이 10분마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쭉날쭉해요. 등하교길 경유하는 학교가 많아 타고 내리는 학생들로 복잡하데 배차간격이 길어진 날엔 최악이죠. 야간자율 학습 후 빠듯하게 오는 130번을 놓치면 20분정도, 또는 그 이상을 기다리는 일도 허다해요. 어쩔 수 없이 환승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죠."

"대아고엔 130번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학교앞이 아니라 엄청난 경사의 언덕이 버티고 있습니다. 버스와는 관계없지만 만원버스로 폭초가 된 상태로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때면 버스라도 좀 편했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나기도 합니다."

130번 타야하는데, 비슷한 버스! 저 버스 타도 괜찮을까?

노선	경유지 및 특이사항
131,132	경상대-중앙시장-오죽광장까지는 130과 노선이 같다. 하지만(진주고→진주여고 방향 기준) 오죽광장을 지나쳐서는 이현월가-축석초를 거쳐 평거동을 지나 희망교를 건너니 유익!!
133	"주의 : 진주여고를 경유하지 않음" 전체적으로 130번의 연장형(?) 이지만, 130번과는 달리 진주여고를 경유하지 않는다. 예하리 부근을 기점으로 가지는 버스.
134	130번과는 다르게 대아고를 경유해 지나간 후 3번국도를 따라 10호광장, 판문동까지 이어지는 긴 노선을 갖는다. 경상대방면에서는 정촌면으로 향하는 점을 유익!
135	진주고 기준 대아고 방면으로는 134와 노선이 같지만, 경상대 방면에서 경상대를 지나 가좌삼거리에서 유턴한 후 진주역으로 향한다!



배차간격이 좁은편이라 120번과 더불어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버스노선이 130번이다. 하지만 130번을 타야만 하는데! 정류장 눈 앞에서 놓쳤을 때, 정말 정말 급할 때, 마침 정류장으로 다가오는, 130번과 번호가 비슷한 저 버스, 과연 타도 괜찮을까?

번외. 130번과 비슷할 것 같지만, 경유지가 완전히 다른 버스들!

1) 120번대 버스들 - 본래 128번이 갤러리아를 경유하며 갤러리아-경상대까지는 비슷한 노선이었지만 3월 15일 부분개편으로 인해 130번과 노선이 전혀 다름!!

2) 144번 - 다른 140번대 버스들이 진주여고, 갤러리아를 거쳐 진주교를 건너는 반면에, 144번은 시외버스터미널을 향해! 버스번호를 잘 보고 타야한다!!

버스에 웬 망치,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버스다. 대중교통이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일 것이다. 물론 운전기사들의 안전운행이 제일 우선이겠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 장비 또한 기본중의 기본이다. 버스 안을 세심히 둘러보면 눈에 띄는 물건 하나가 있다. 바로 망치다. 자그마한 빨간 망치로 장난감 같은 느낌을 주지만 버스에는 반드시 비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중 하나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르면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구를 갖추지 못한 16인승 이상의 버스에는 적어도 4개 이상의 비상용 망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규정이 되어있다.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망치 아래에는 "화재나 교통사고 시 창문을 부수고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의 문구가 써 있다. 비상탈출망치는 화재나 침수 등 사고로 승객들이 긴급한 탈출을 요하는 경우, 유리창을 깨 수 있도록 버스내부에 비치된 도구다. 지난 2000년께까지 않는 버스유리창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부산 부일외고 수학여행 버스 사고 이후, 대형 침사를 예방하기 위해 비치를 의무화했다.

[취재/ 박승민(진주고2) 기자]

[핫플레이스] 진양호동물원 재개장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갇힌 동물원 동물들

예산지원 없는 진양호동물원은 동물학대 교육장이 된다

진주시민이라면 한번쯤은 진양호 동물원에 가 본적이 있을 것이다. 어린시절 부모님들 손을 잡고 설렘으로 찾았을 그 동물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잊혀졌고 발길을 끊었던 곳이 바로 동물원이다.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폐쇄했던 진양호 동물원이 올 봄 재개장되어 돌아왔다. 진양호 동물원은 공짜나 다름없는 싼 가격과 원숭이, 호랑이, 곰 등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어 연인, 친구들, 가족들과 나들이하기에 좋다. 학생들엔 어쩌면 동물원보다 진양호 전체가 지친 일상을 식혀 줄 안정맞춤의 공간이 아닐까 한다.

진양호 동물원 어디있나요?

진양호동물원은 1986년에 개장했으며, 진주시가 직할로 관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프리카코끼리나 기린 등 규모가 큰 동물원에서나 보유했던 동물들도 보유했으며, 동물원의 마스코트격인 동물로 암사자 순이가 있었으나 시간이 흘러 상기한 동물들이 모두 폐사하고 현재 그 우리들은 다른 동물들이 사용하고 있다. 자금난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동물 우리가 콘크리트로 바닥이 구성되어있는 등 시설의 노후화가 상당하며, 일부 동물들은 개체수가 줄어들었음에도 진주시가 포유류의 추가확보를 중단하여 혼자 생활한 탓에

정형행동을 보이고 있다.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편문동 171-1 (진양호 내)
- 시내버스 120번, 250번, 270번등을 타고 진양호 정거장에서 내려 진주 랜드를 거쳐서 20분을 걸어가면 도착한다.
- 운영시간 : 하절기(3월~10월): 09:00~18:00/ 동절기(11월~2월): 09:00~17:00



- 가격(개인) : 성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
- 무료입장 대상자 : 7세 미만의 어린이/ 만65세 이상의 노인(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지참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증 소지자

동물원 이대로 괜찮은가?



진양호 동물원을 관람하여 오랜만에 다양한 동물들을 봐서 좋았지만 즐겁기만은 할 수 없었다. 동물들에게 해로운 물건을 주지 말고 먹이를 함부로 주지 말라는 경고문이 있었지만 방문객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곰, 토끼, 당나귀에게 먹이와 쓰레기를 던졌고 우리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인상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물들이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지 무기력해 보였고 강인한 이미지인 호랑이 또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바닥에 드러누워 눈만 깜빡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특히 당나귀가 사람들이 던진 똥튀기를 먹으려고 힘겹게 고개와 허를 내미는 모습은 너무나 애처롭고 비참해 보였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솔직히 '과연 동물원이 이대로 계속되어도 괜찮은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치용 기자

"곰에게 먹이를 던지고 소리 지르는 아이들을 보고 동물원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물원이 학습의 명목으로 쓰이고 있지만 내 생각엔 동물은 아이들에게 그저 장난감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았다. 장난감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여겨지도록 동물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싶다"

—송진서 기자

"동물들이 활동적이지 못하고 힘이 죽어있는 걸 보니 여기는 동물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물원이 동물들을 구경하라고 있는 곳이지만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생명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니 폐쇄적인 공간에 동물들을 방치해두면 안된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동물복지를 위한 투자 없으면 폐쇄도 고려해야 한다

진양호동물원은 경남도내 유일의 동물원이라는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었으나, 전술한 암사자 순이 사망 사건 이후로 노후화와 부실한 관리가 지적 받기 시작했다. 2015년, 진주시는 자금난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진양호 동물원의 운영에 회의적이며, 포유류의 추가확보를 중단하고 조류 중심으로 소공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 진주시는 몇 년 전부터 동물원의 동물들을 경남도가 운영하는 진주시 이반성 경남수목원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경남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무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인 진주시 시민 1000명 중 61%가 동물원 폐쇄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동물들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방안은 무산된 듯 하나, 결국 포유류의 추가확보는 중단된 듯하다.

당장 동물원을 없애 그곳의 동물들을 전부 야생으로 보내줄 수 없다면 그 안에서만큼은 최대한 본성을 표출하며 삶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동물원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숙제일 것이다

지금의 진양호 동물원은 아이들의 교육적 차원으로도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다.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동물복지 개념이 있는 동물원으로 탈바꿈 시키지 못한다면 이런 상태로 동물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갇힌 동물들에게도 못할 짓이 아닐까?

바람 잘 날 없던 진양호 동물원

초등생 팔 절단 사고

1991년 9월 3일 오후 2시 30분 경, 박형규군(7)이 진양호동물원의 불곰사 관람객 보호 철책 사이로 기어 들어가 불곰에게 라면과자를 던져주다 6년생 불곰이 달려들어 오른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탈출 호랑이 사살 사건

1998년 2월 11일 10시 10분, 2월 9일 날 새끼를 낳은 암컷 벵골호랑이 '호순이'가 우리 바깥으로 탈출하여 1시간 동안 동물원내를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당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진양호 동물원에 마취총조차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반달가슴곰 폐사

2014년 11월 20일, 16살의 암컷 반달가슴곰이 6살된 자신의 새끼 곰에게 공격당해 치료를 받던 도중 죽었다. 본래 이 두 곰 사이에서 잦은 싸움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둘을 분리시켰다가 싸우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둘을 다시 합사했다가 이런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암사자 순이 사망 사건

2014년 11월 29일, 진돗개 '땡칠이'와 함께 지내는 사자로 유명했던 암사자 '순이'의 바로 옆우리에 살고 있던 12세의 수컷 불곰 '온비'가 두 우리 사이의 중간문을 부수고 순이의 우리로 들어와 20세의 노쇠한 암사자인 순이를 공격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알려진 반달가슴곰 폐사 사건과 더불어, 진양호 동물원의 노후화 문제와 부실 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었다

[취재/ 성치용(중앙중2), 송진서(명신고2)기자]

[취재수첩]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을 잘 키우고 있을까?

학교내 선거도 교육의 일부분이 되었으면...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나와 다른 다양한 친구를 만나며 모두가 동의한 규칙에 의해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체를 형성한다. 학교 밖 우리 사회를 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다.

요즘 대통령선거로 온 나라가 들쭉인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우리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선거가 있다. 아마 모든 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를 치를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선거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있을까?

우리사회에서 볼 수 있는 선거에서의 부정이나 잘못된 관행은 학교에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기대가 있다. 학교에서 각 반의 반장은 지역 국회의원 같다. 지역 국회의원이 그 지역을 대표하듯 반장 또한 미친가치다. 국회의원 선거 때면 늘 인물이나 정책보다는 그 사람의 지역(연고)을 보고 뽑는 경우를 지켜왔다. 경상도,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조건 1번을 찍었다. 학교는 다

를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로 선생님께서 각반 반장의 출신 중학교를 물어보고 "이 반은 **중이 많지? 이 반은 ##중이 많구나." 하셨다.

어른들 사회와 달리 학교라는 사회는 학생들이 진정성을 따지지 않고 재미를 추구한다. 예전 진주 J중의 전교 회장선거가 있었다. 학교운동장에 아이들을 모아 놓고 각 후보의 선거유세를 들었다. 한 후보가 머리에 고무장갑을 썼고, '꼬끼오' 하는 소리를 내며 닭 흉내를 내면서 아이들에게 '재미'를 선사했다. 선거가 순간 정난으로 바뀌었다.

그 친구는 회장이 되었다. 그러나 꼭 그 '재미' 뒤에 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 후보와 같은 반이었던 친구에 따르면 선거 전 담임선생님께서 "우리 반에 전교 회장 후보가 있으니 가끔씩이면 그 친구를 뽑자"고 하셨었다. 또 J중학교는 회장 선거를 컴퓨터를 이용해 투표한다. 다른 친구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자기 반 후보가 계속 쳐다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학교 학생회 선거는 우리 사회의 선거문화와 다른 것일까?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좀 달랐다. 진주 D고는 하루를 선거일로 지정해서 전교생이 강당에 모인다. 회장, 부회장 후보의 유세도 있고 유권자인 학생과 집의응답 시간도 있다. 각 후보의 공약을 어떤 식으로 실천할 것인지를 묻고 화답을 받는다. 즉석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까닭에 후보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고 투표할 수 있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선거권이 있는 성인들이 국회의원 대를 뽑을 때 투표하듯이 학교내에도 똑같이 기표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사방이 가려진 기표대 안에서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를 찍고 나와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소 안에 들어갔을 때의 기분은 짜릿했다. 머지않아 만나게 될 선거를 미리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동명고, 진양고, 진주고, 사대부고는 이렇게 기표



소를 설치하여 투표하고, 제일여고, 경해여고, 진주여고, 중앙고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투표를 한다고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기반이 되는 제도가 선거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 꽃을 우리는 학생일때부터 학교에서 잘 키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학교 내 작고 큰 선거도 어렸을때부터 교육의 한 부분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취재/ 김해찬(동명고2)기자]

모의고사 백분위? 무슨 뜻이지?

모의고사 성적표속에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정보들

3월, 6월, 9월, 11월마다 치르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보통 모의고사 성적표는 시험을 치른 후 약 3주 후에 받아볼 수 있다. 대부분은 자신의 등급과 점수, 석차만 확인하거나 때로 점수가 낮게 나왔을 때 자신의 이름이 맞는지 확인, 또 무엇을 틀렸는지 들춰보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성적표를 제대로 볼 줄 모른다면 표준점수, 백분위, 성취도 등의 단어들이 한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성적의 상대적 위치 파악은 물론 각 과목별 학습부진 영역과 성취 수준, 시험의 난이도 등 보석 같은 정보들이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성적표다. 성적통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른쪽 기타 참고 자료에 백분위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백분위를 살펴보면 국어+수학, 국어+사회 또는 과학, 국어+수학+사회 또는 과학, 사회탐구(2) 또는 과학 탐구(2) 과목 옆에 각각의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다.

성적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이 '백분위'다. '백분위'란 집단의 크기를 언제나 100명으로 생각했을 때의 순위이므로 상위누적 퍼

센트(%) 개념의 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백분위가 75라면 그 학생은 상위 25%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현재 위치'를 제시하므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점수로 매번 보는 모의고사에서 백분위를 비교하면 성적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모의고사 백분위 점수의 합계와 배치 점수와의 비교를 통해 정시지원이 가능한 대학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어 수시지원 대학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다.

그렇다면 백분위는 어디에 활용될까? 백분위는 주로 탐구 영역에서 활용된다고 한다. 대부분 대학에서 탐구 영역 반영 시 백분위를 활용한 대학 자체 전환표준점수를 활용하여 과목 선택에 대한 유/불리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성적표에서 등급은 수시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학부모들이 등급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 등급은 수시전형에서 필요한 점수다. 최저 학력을 맞출 때 필요하다. 1등급은 4%, 2등급은 7%처럼 상위 퍼센트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지만, 작년에는 한국사가 2018학년도 입시부터는 영어

가 원점수로 등급(90점 이상이 1등급, 80점 이상이 2등급 순서로)이 정해진다.

표준점수는 정시에서 많이 활용되는 점수인데 전체 평균을 100으로 놓고 분포시킨 상대점수를 뜻한다. 학생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요약해 보여주는 지수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을 때는 표준점수가 올라간다. 만약 국어와 영어를 같은 점수를 받았을 때 표준점수가 큰 과목이 실제적으로 더 시험을 잘 본 셈이다. 백분위보다는 변별력이 있어 상위권 대학에서 성적지표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물수능, 불수능이라고 말할 때 이 표준점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기준점 100에서 130점 이하는 물수능, 132점대는 비교적 쉬운 수능, 135점대는 어려운 수능, 138점 이상은 불수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 시험의 경향은 135~136정도가 많은데 학생들이 잘 풀 수 있으면서도 변별력을 갖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1~2학년 때 모의고사에서 성적에 일희일비

기타 참고 자료		
영역	산출방법	백분위
국+수		81.07
국+사		71.34
국+수+사		81.08
사회탐구(2) 과목		76.06
		177136
		172400
		170147
		167966

해서는 안 된다. 모의고사란 현재 자신의 학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므로 결과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목표를 세워 학습전략 및 입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적표의 정보는 유용한 도움을 줄 것이다. 자신의 꿈을 향한 대학 진학을 위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미 그 꿈을 실현한 자신의 모습을 현재의 거울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재/조혁준(사대부고2)기자]

오타쿠, 덕후가 뭐 어디서?

덕후를 바라보는 오해와 편견을 깨고 긍정을 바라보다

오타쿠, 덕후, 덕질, 입덕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말이다. 오타쿠란 1970년대 일본에서 등장한 신조어로 어떤 분야에 마니아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성이 결여돼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덕후는 이 오타쿠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주위에서도 오타쿠, 덕후 등으로 불리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을 보는 시선은 일반적으로 호의적이지는 않다. 사회 부적응자 즉 폐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덕후에는 어떤 부류가 있고 덕후인 청소년들의 생각과 그들을 보는 시선은 어떻게?

[애니 덕후]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을 덕질하는 덕후를 말한다. 덕후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이미지이기도 하다. 애니 덕후의 기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데, 애니메이션은 누구나 한번쯤은 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애니를 본다고 다 덕후는 아니다. 그래서인지 애니 덕후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에는 힘들다 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애니에 빠져 있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있다. 덕후로 보이는 00고 K 모씨(18, 남)의 얘기를 들어 보았다.

Q: 애니메이션을 얼마나 봤고 얼마나 자주 보니?

A: 120편 정도 되고 매일 2~3화씩 코파코박 챙겨보는 편이야.

Q: 내가 생각하는 애니메이션 덕후의 기준이 뭐니?

A: 애니를 좋아하고 다른 애니 보는 사람에게 이런 이런거 재밌더라라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

Q: 애니덕후라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차별당한 적이 있니?

A: 매번 그냥 웃고 넘겨졌지만 놀림을 자주 받았었어...

Q: 애니 덕후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A: 덕후가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놀리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 봐, 나와 다르더라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갔으면 해.

[게임 덕후]

게임과 덕후를 합친 말로 게임을 마니아 이상으로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게임 덕후 내에서는 롤, FPS 게임 등 다양한 종류의 게임 덕후들이 있

다. 다른 덕후들과는 달리 비교적 많은 덕후들이 존재하고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게임 덕후는 00고 G모씨(18, 남)의 얘기도 들어 보자.

Q: 게임을 언제부터 덕질하게 되었고 어떤 게임을 얼마나 하니?

A: 게임은 초3 때 로스트 사가를 계기로 입덕하게 되었고 그 뒤로 꾸준히 하고 있어. 모바일, PC 게임을 가리지 않고 했었고 요즘은 롤, 메이플, 하우스, 아이작, 오버워치 등을 주로 하고 있지. 일주일 적어도 25시간 이상씩 해.

Q: 게임덕후와 게임중독자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니?

A: 중독은 게임을 병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게임 없이는 못 살고 화나고 불안한 거지. 그에 반해서 덕후는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는 것야. 멀리서 보면 둘 다 게임을 오래 하니까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

Q: 게임덕후라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차별당한 적이 있니?

A: 중학교 2학년 때 안 좋은 일이 겹쳐 진짜 게임만 했을 때가 있었어. 그때 게임은 나한테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책이었고 그래서 매일매일 게임만 하고 친구들과의 소통을 끊었는데 나중에 둘러보니 내 근처에 아무도 없더라. 다가가려고 해도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

Q: 마지막으로 게임 덕후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A: 게임덕후는 겉보기에는 나쁠 수 있지만 게임 그 자체를 좋아하고 나름 건전한 취미생활이니까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연예인 덕후]

연예인을 덕질하는 덕후를 연예인 덕후, 줄여서 연덕이라고 부른다. 또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여성팬을 비하하는 말로 빠순이라고도 한다. 게임덕후와는 반대로 남자보다는 비교적 여자들이 더 많고 일부 사생팬들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 면이 없지 않다. 연예인 덕후로는 00고 L모씨(18, 여)를 만나 보았다.

Q: 덕질하는 연예인과 덕질하게 된 계기?

A: 팀과 개인 모두 매력 넘치는 아티스트, 블랙비 팬이야. 블랙비 노래는 원래부터 좋아했는데 아이돌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처음엔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 그랬는데 힘든 일 겪고 울지도 못하고 참던 날이 있었는데 딱 블랙비 컴백날이었어. 흘러나온 '빛이 되어줘'라는 노래를 듣고 엉엉 울었고 그 노래는 내겐 너무 큰 힘이 되었어. 날 일으켜 세워준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때 팬이 되어야지 결심해서 지금까지 응원하고 있어.

Q: 아이돌 여성팬들이 빠순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A: 빠순이가 오빠+순이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로 알려져 있는데 Bar+순이라는 뜻도 있는 단어라서 듣는 사람이 무척 거북하다는 건 알아줬으면 해. 팬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빠순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자기 수준을 드러내는 거라고 봐.

Q: 연예인덕질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거나 다들 적이 있니?

A: 워낙 공개형 팬이라서 처음 보는 사람들도 금방 블랙비 팬임을 눈치를 채. 그래서 놀림을 당한 적도 싸워본 적도 없는데 몇몇 팬분들은 스스로 숨기더라고. 나이가 들면 놀림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울 것 같긴 해.

Q: 마지막으로 연예인 덕후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A: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온전히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행복이자 버티는 힘이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니까, 그걸 놀림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덕후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

취재 결과 덕후라서 놀림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청소년들의 실태를 알 수 있었고 덕후를 그저 좋게만 바라볼 수 없는 청소년들의 시선이 드러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덕후임을 들켜지 않기 위해 일반인인 척하는 행동하는 일코(일반인 코스프레의 줄임말)를 하는 덕후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덕후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중매체와 SNS에 의해 사회부 적응자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일반화되고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덕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덕후들이 덕질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해 덕질하는 대상을 직접 만나게 되는 성덕(성공한 덕후의 줄임말)이 생겨나면서 덕후에 대한 시선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무언가 하나에 열중하여 끝까지 노력하는 경험은 매우 소중하고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데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덕후'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은 분명 대단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고, 각고의 노력도 필요하다. '덕후'들은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목표로 삼은 일을 끝까지 해낸다. '덕후'들은 좋은 학습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저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과 차별을 받는 덕후들을 존중해주려면 우리 모두의 시선과 인식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 부셔야 할 때가 아닐까?

[취재/성치용(진주중앙고2)기자]

덕후를 향한 청소년들의 시선

-00고(B씨,18남)

"나는 덕후들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덕질도 하나의 취미생활이고 그것이 특기로 바뀔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시선 때문에 아파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데 남의 시선을 크게 상관 안 하면 된다고 봐, 물론 우리의 시선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

-00고(Y씨,18남)

"나는 덕후들을 부정적으로 봐. 왜냐하면 일부이지만 덕후들은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줘. 예를 들어 <너의 이름은> 같은 영화를 볼 때 극장에서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른다가나 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위협을 가하는 사생팬들 또한 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주변에 피해가 없다면 비판할 것이 안 되지만 어떻게든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봐."

-00고(A씨,18남)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것은 개인의 취미이고 취향이므로 존중해야 하지만 그 애니메이션에 과하게 몰입한다거나 따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사람이 많은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해."

[취재/성치용(진주중앙고2)기자]

[동아리탐방] 경상사대부고 생명의학동아리 SCI-CO

경상사대부고 이과 탐! 생명의학 동아리 싸이코!

생기부와 재미, 둘 다 잡아 줄 것이다

각 학교마다 과학동아리는 하나씩 있기 마련이다. 저마다 자기 학교가 최고라 말하겠지만 경상사대부고 생명의학동아리인 SCI-CO(싸이코)의 자부심은 진주 최고라 할만하다. 다양한 실험과 발표, 축제 기간 중 부스 운영을 통해 친구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일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특이한 이름 속에 담긴 동아리의 숨은 이야기들을 들어 보려 한다. SCI-CO에서 부장 겸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이예원 학생을 만나 보았다.



〈SCI-CO 부장 2학년 이예원〉

Q.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아리는 과학에 관심 있고 생명의학 계열로 진로를 설정한 친구들이 모인 'SCI-CO'라는 생명의학 동아리입니다~~!! 부설고등학교에서 싸이코들만 모였다는 소문도 돌지만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Q. 동아리 이름이 특이한데 그 이유는?

동아리 이름은 선배들 때부터 전해져오던 이름이라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SCI-CO는 science cosmos, 즉 과학우주의 약자입니다^^,, 이름이 특이하니 홍보도 잘되고 재밌더라고요.

Q. 동아리 신입회원의 선발기준은?

선발기준은 일단 싸이코 같아야 합니다.^^ 농담이구요. 무조건 동아리활동에 의욕이 있어야 하고 생명의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여야 하겠죠. 신입회원의 의욕과 열정을 확인해 보기 위해 신입생면접 때 '장기자랑' 항목도 있습니다.

Q. 동아리 활동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생명의학 관련 진로를 가지고 있는 친구

들이 모여 그 분야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조별로 여러 실험을 직접 준비하고 진행을 직접 맡음으로써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양한 주제를 두고 토론을 진행해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Q. SCI-CO만의 다른 특징과 장점은?

일단 재밌고 다양한 실험들을 많이 해서 흥미롭습니다. 선후배간 또한 화기애애하고 재치 넘치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항상 부스운영을 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실험이나 해부 등을 선보이기도 해요. SCI-CO는 딱딱하지 않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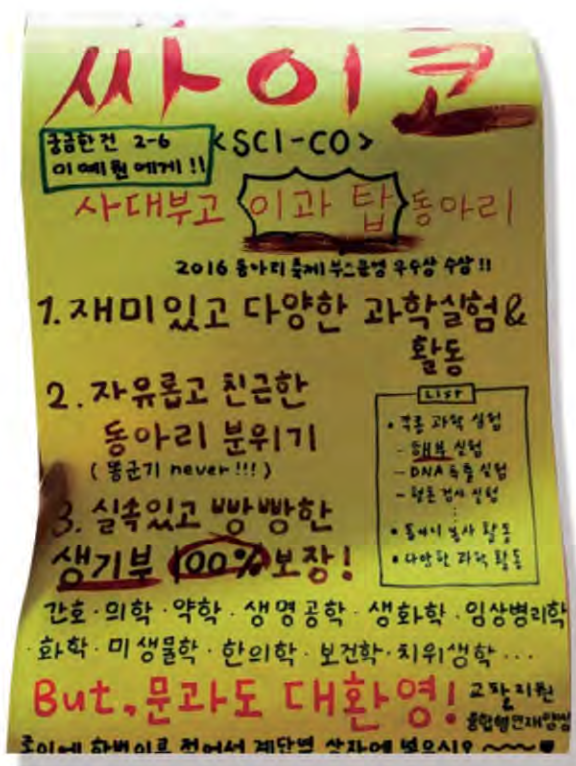
Q. 해부 실험도 있는데 동물들이 불쌍하지 않나요?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지만 동물실험의 발전사는 곧 생물학, 의학의 발전사입니다. 저희는 해부 실험을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최소한으로 시행할 뿐만 아니라 진행자들은 실험시작과 끝에 묵념하고, 진중한 분위기에서 실험을 실시합니다. 또한 사체는 학교 뒷산에 정성스럽게 묻어주고 간단한 의식도 지킵니다. 실험동물들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Q. 경상사대부고에 진학할 수 있는 후배들, 미래의 SCI-CO 부원이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사대부고에 들어 온 친구들 중 생명의학에 관심 있는 친구는 무조건 'SCI-CO'로 오세요~~~~ 생기부와 재미, 둘 다 챙길 수 있는 알차고 다양한 활동들은 물론이고 생명의학분야 진로를 가진 선배들로 쩡쨍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부도 하고, 멋진 의사처럼 흰 가운도 입고, 신기한 실험도 해보고 싶다면 동아리는 단연컨대 싸이코~!!~

[취재/ 조혁준(경상사대부고2)기자]



[GO발! 이의있습니다③] 위험한 등굣길

위험한 등굣길, 왜 대책이 없는가? 동명중, 고등학교 비오는 날 위험천만한 등교

진주 동명중, 고등학교의 등굣길 풍경이다. 학교 후문쪽은 비가 오는 날이면 좁은 외길에 학생들을 데려다 주는 부모들의 승용차와 등교하는 학생들로 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진다. 가끔씩 접촉사고와 학생들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진주 동명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거의 2천여명의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를 한다. 정문쪽은 그나마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역시도 수많은 학생들이 날마다 등하교를 하는 길임에도 인도가 없다. 충분히 인도를 만들 수 있는 도로 폭임에도 원인인지 그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후문쪽은 심각하다. 1차로의 좁은 농로와도 같은 진입로가 학교 개교 당시와 전혀 다름없이 수많은 학생들의 등하교 길로 이용되고 있다. 인도는 고사하고 도로 자체가 좁아서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대엔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다. 그런데 만

일 비라도 내리는 날엔 위험천만한 풍경들이 벌어진다. 학생들을 데려다 주는 승용차들이 줄을 잇고 그 차들이 학교 후문에서 다시 돌아 나오기 때문에 등교하는 학생들과 진입하는 차와 나가는 차들이 엉켜서 북새통을 이룬다. 결국 항상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학교 가는 길, 지나는 승용차들로 한 발걸음 옮기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할 형편이다.

집 한 두 채에 사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 냇가에 다리를 놓는다. 그것은 누구나 당연히 나라가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한다. 그런데 천 8백여명이 날마다 등하교를 하는 길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제기가 십 수년째 계속 되어도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직접 당사자가 없었던 아이들이라서 그런 것일까? 아직 큰 인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일까? 분명한 것은 이곳이 학교가 아니라 상가나 주택가등 이었다면 어떻게든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 어른들이 또한 그것을 계속 두고 보

지도 않았을 것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도로를 넓히고 인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당장이라도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등하교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는 부분적인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후문 진입로 자체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위험하다. 이런 위험이 항상 존재함에도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큰 사고가 터져야 들여다보고 바로 잡기엔 우리 사회에는 너무도 가슴아픈 안전사고들을 많이 겪었다. 하루빨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이 확보되길 바란다.

[필통편집국]



[JOB을 잡아라] 진주가좌복지관 사회복지사 최명국팀장님

기계는 할 수 없는 휴먼서비스 미래 유망직업! 사회복지사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는 기계화로 인해 삭막해지고 인정이 메달라 간다. 사회복지사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직업이다. 요즘 복지과 관련된 직업이 떠오르면서 사회복지사 또한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복돋아 주는 사회복지사,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진주시 가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최명국 팀장님을 찾아 사회복지사의 여러 궁금증을 풀고 실제 일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고자 한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사회복지사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사회복지사가 되기 전 복지관 근처 마트에서 근무 중 물건을 훔치는 남매를 붙잡았는데 그 남매는 사정이 딱했어. 그 때 참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남매를 보며 아동 청소년이나 노인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에 남았고 그것이 지워지지 않았죠. 결국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Q. 사회복지사는 어떤 직업인가요?

A.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로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직접 하는 일이 많기도 하지만 중개자 역할도 꼭

필요하죠. 우리 사회에 봉사를 하고 싶거나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도와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Q. 사회복지사가 갖춰야할 자질이 있을까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자체를 갖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사회복지사는 직업 그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운다는 것이 단순한 일이나 업무로 끝날 순 없지요. 또한 자기 자신이 소외된 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가 라고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사회복지사에 대한 주변 인식은 어떤가요?

A. 요즘 대선 기간인데 대선 공약 중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공약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정도로 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Q. 현재 복지정책 중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A. 저는 우선 사회복지사가 너무 정치적인 성향이나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받는 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죠. 그리고 꼭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지 정책을 만들 때 탁상공론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오래 일해 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 있으신지?

A. 저희 복지관에는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에게 '생신상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생신당일 날 저희들이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그날 하루만큼은 손자 손녀가 되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복지관 옆 아파트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기억에 남네요. 일을 하다보면 너무 많은 사연들이 가슴 속에 쌓이는데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Q. 사회복지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A. 다른 직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대우가 열악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엔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공무원의 80%이상 수준에 맞추겠다는 공약이 있기도 했고 그만큼 많이 개선되고 있죠. 사회복지사라고 예전처럼 상식밖으로 소득이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월급이 적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Q. 봉사활동을 하러 오는 학생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A. 제가 봉사활동 담당이라서 특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학생들은 단지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Profile 최명국

-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에서 2006년부터 근무
- 경남과기대에서 2년 동안 강사
- 진주보건대에서 6년간 겸임 교수
- 현재 박사과정 공부중

복지관 등 시설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원래 자원봉사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에 의한 자발적이고 무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활동 시간을 반대급부로 가져가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자원봉사가 아니죠. 시간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마음만은 진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Q.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A.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복지와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 것이 일을 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으면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건강가정진흥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강사 자격증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을 땀습니다.

Q.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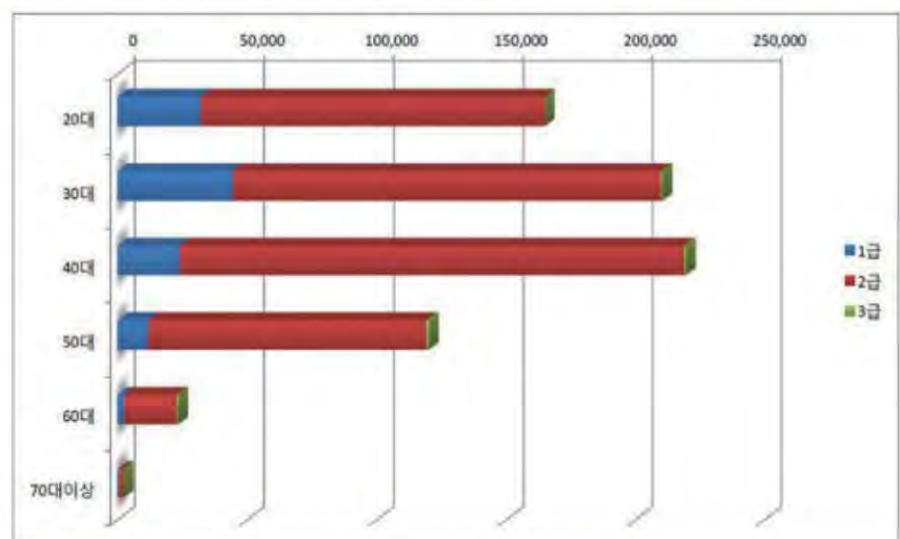
A.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많은 일을 기계가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나 상담사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은 기계가 대신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앞으로 뜨는 미래 유망 직업 10위 안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회복지사가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자격증을 딴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꾸준히 한 분야에 자신의 노력을 다한다면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직업이라도 원하는 결과를 만들 겁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연령대별 발급현황 (2015년, 12월 기준)

(단위: 명/%)

연령	급수 단위	1급		2급		3급		소계	
		건	(%)	건	(%)	건	(%)	건	(%)
20대		32,094	4.33%	132,802	17.93%	35	0.00%	164,931	22.27%
30대		44,385	5.99%	165,346	22.33%	678	0.09%	210,409	28.41%
40대		23,962	3.24%	194,632	26.26%	822	0.11%	219,416	29.63%
50대		11,740	1.59%	107,301	14.49%	1,105	0.15%	120,146	16.22%
60대		2,514	0.34%	20,320	2.74%	586	0.08%	23,420	3.16%
70대 이상		522	0.07%	1,637	0.22%	79	0.01%	2,238	0.30%
소계		115,217	15.56%	622,038	84.00%	3,305	0.45%	740,560	100.00%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미래 유망직업 TOP20안에 선정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써 각 개인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생활 시설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게 되며 종합병원 및 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유망직업 TOP20안에 선정될 정도로 전망이 매우 좋으며 의료법, 정신보건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화로 연간 10%이상 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복지정책 강화를 위하여 2017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 6,000명 증원을 발표했고 이에 사회복지사의 중요성 및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주로 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에서 일하거나 공무원으로 일하는데 2015년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은 1만 5939명입니다. 그리고 복지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복지시설은 약 7000여 개에 이릅니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수여하는데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바로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대 졸업자는 1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015년에는 총 2만 1393명이 응시하여 6764명이 합격, 합격률이 31.6%로 비교적 어려운 시험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지만 그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수가 다르지만 평균 2300여 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있어 희망은 사람입니다

현재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왕따, 자살, 우울증 등 사회적 문제는 바로 우리가 사람을 포기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노해의 시 "다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회복지사에게 있어 희망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포기해도 사람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복지사이지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조금이나마 아름다워 질것입니다. 권력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법입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꾸고자 한다면,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받는 사회복지사의 길을 추천해 봅니다.

드디어 진주에도 청소년 뮤지컬단이 창단된다!

노래와 춤, 연기에 관심있는 청소년들 도전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연예술 산업의 70% 이상이 뮤지컬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는 뮤지컬 분야의 전문 배우들과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으며 청소년 뮤지컬단이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방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전혀 다른 세상처럼 뮤지컬이란 장르는 너무나 생소하고 접할 수 없는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결국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예술의 생태계 속에 진주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뮤지컬단이 만들어진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한다. 바로 진주 청소년뮤지컬단 '다재다능'이란 이름으로!

이 뮤지컬단은 노래와 춤, 연기 등 다재다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하기에 '다재다능'이란 이름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끼 있고 재능 있는 친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수시로 오디션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청소년뮤지컬단 '다재다능' 만이 가진 강점은 배우 팀과 함께 연주 팀도 구성되어 진행된다는 점이다. 물론 파트별 전문강사들이 직접 지도하고 참여한다는 것. 전국에서도 처음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전해 본다.

연습 공간은 경남청년문화창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창작공간 '날개'에서 진행되며 연주 팀과 배우 팀들을 교육 할 전문 강사들은 뮤지컬공연 전문단체 '공연예술BOX 더플레이'에서 지원하게 된다.

연주 팀과 배우 팀으로 나눠 8~9명의 전문 강사들이 책임 있는 교육을 통해 공연도 하고 대회도 준비할 계획이고 지역사회에 문화 봉사활동도 진행해 갈 계획이다. 경남을 대표하는 청소년 전문 예술단체를 목표로 활동하게 될 진주 청소년뮤지컬단 다재다능!

기대해주세요~!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뮤지컬 수업 모습〉



진주 청소년뮤지컬단 '다재다능' 기 모집 광고

모집 대상	진주 및 서부경남 중 · 고등학생 (청소년)
모집 기간	2017년 5월 8일 ~ 5월 27일 (직접 방문 면접 - 방문 전 연락 필수)
모집 장소	문화예술창작공간 '날개' 진주시 평거동 진양호로 257, 2층 (평거볼링센터 2층)
모집 인원	배우팀 16명 (남 8명 / 여 8명) 연주팀 8명 (드럼 2명 / 일렉기타 2명 / 건반 2명 / 베이스 2명)
교육 일정	2017년 6월 3일 ~ 2017년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6시 * 연습일정과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도 있음 * 12월 ~ 1월 중 공연 발표 예정

문의 • 공연예술BOX 더플레이 010-2558-3194 / 010-2486-9885

[상식뽕개기] 탈문 알고 있는 여드름 상식



1. 세수를 많이 해야

여드름이 빨리 없어진다??

여드름이 한번 나고 나면 얼굴에 이물질 때문이라는 생각에 빡빡 씻어내고 한다. 여드름이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다섯번까지 세수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 여드름 환자들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에 두번 정도 세수하는 것이 좋다. 그 이상 할 경우 오히려 피부를 더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여드름이 보이면 즉시 짜라??

짜는건 일종의 수술과도 같다. 얼굴에 흉한 여드름이 툭 하고 튀어나왔다고 무조건 짜는것은 좋지 않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부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모공이 넓어지고 흉터가 남기 때문이다. 여드름은 먹는 약과 바르는 약으로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최고다.

3. 여드름 째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웁는다??

여드름 째 손으로 여드름이 번지는 일은 절대 없다. 여드름은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드름을 짜면 2차적인 세균감염이 있을 수 있으나 손이 닿은 다른 얼굴 부위에 옮는 것은 절대 아니다.

4. 여드름은 점이 된다??

여드름은 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알고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불안에 떨지 말자. 여드름은 절대 점이 될 수 없다. 여드름을 형성하는 흑색세포를 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절대 점 이 아니다.

5. 고기, 인스턴트 음식이 여드름을 악화시킨다??

여드름은 피부에 피지가 많은 사람에게 잘 생긴다. 그렇다고 기름기 많은 음식이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피부에서 피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피지선이 담당하는데,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양은 섭취한 지방의 양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여드름엔 영향을 주지 않는다.

6. 초콜릿, 콜라는 여드름의 적??

초콜릿, 콜라가 여드름에 좋지 않은 음식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주 많은 양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다. 여드름 환자라도 음식을 골고루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7. 생리가 불규칙하면 여드름이 생긴다??

여드름이 심한 정도와 불규칙한 생리주기는 엄밀하게는 상관이 없다. 불규칙한 생리로 인해 여드름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리를 불규칙하게 만드는 신체리듬의 변화, 스트레스에 의해 여드름이 악화되는 것이다. 생리 전에 분비되는 프로게스테론에 의해 피지분비가 증가되어 발생하는 '월경전 여드름'은 불규칙한 생리주기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다.





필통 우체통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fe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월 신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독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안녕! 돼지야~~



벌써 친구한지 10년이 넘었냐... c
c
많이 한 것도 없는데....
여자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복정
평생가자~
▷ 보내는이: 중암고 2학년 정민석
▷ 받는이: 명신고 2학년 표영찬

To. 하민재

민재 안녕!
나.. 승용인데 뽕공하느라 힘
들제.
하음 단단히 먹고 공부하는거
보면 한편으로는 대단하고 한
편으로는 본받아야 될거 같다.
시험전까지 열심히 해서 성
적 잘 받고
시험끝나면 해들아랑 같이 놀
러가서 맛있는거 먹고 신나게
놀다보자.
힘내라!!



-From. 이승용

To. 김가똥



경해여고 2학년 8반 김가똥은 보자.
잘 지냈?
솔직히 너한테 하고 싶은 말없음... 걔 2
당에 강해동여랑 조여동여랑 만나서 놀자
ㅋㅋ
중간고사는 잘했냐? ㅜㅜ
후리 1년 개월만 버티자~~ 친구여!
또 밀보여행 꼭 가자!!!! 사랑해(하하하)

-From. 누구개?

To. 내새끼



너한테 편지쓰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
시험기간이라서 늘 하던 연락도 뜸했지고 ㅜㅜ.. 얼른 시
험끝났으면 ㅎㅎ,
저번달부터 이번 달 초까지 같은 학교도 다니면서 일주
일에 세번 네게 보고 ㅋㅋㅋㅋ
너무 재밌었는데 말이야! - ♡
시험기간이 끝났을 때 방을 저렇게 메는거라며 시범 보여주시고 ㅎ
ㅎ! 멋있어! 멋있어! 3
넌 곧 실기 때문에 바빠지겠지? 힘들어 하지 말고 천천
히 준비했으면 좋겠다.
넌 위는 잘하니깐, 잘했으니깐 꼭 할 수 있을거야 믿
는다!
많이 의지하고 있고 같이 보낼 수 있는 날들에 감사해.
날 좋은 친구라 믿고 함께 있어주는 너 덕분에 늘 좋은 사
람이 되어있지 다짐하는 것 같아.
하루 일과 해가하면서 전화하는 시간도 네가 고민 털어
놓는 시간들도 소중하다.
이제야! 지금 힘들어하는 일이 어떻게든 해결되었으면 하
는 바람이다..
힘들지 말자 ㅜㅜㅜㅜ 네 때문에 내가 더 슬프다.. ㅜ
ㅜㅜㅜ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자!
늘 고맙고 많이 사랑해~♡

-From. 너사람)-(

To. 연약한 아이들

안녕 못난이들..?

못난이 사이에서 가장 빛나는 다혜라고 해 ㅎㅎ

그새 후리가 만난 지... 음... 어... 4년이 다 돼 가네!

공부랑 하동여랑 재민이는 제외지만, 난 너네 연 이
여주고 나서 진짜 얼마 안 갈 거라 생각했다. ㅋㅋ
죽 근데 이 상태라면 진짜 성인 돼서 술 한 잔 할 듯.
내친 김에 단체로 여행랑 백년가약 맺자.♡ (그리고
다음 날 단체 절연...) 어쨌든 후리 못난이들을 위해
내가 서툰 필력을 한 번 내려보지.

처음엔 누가 좋을까, 눈 앞에 보이는 후리 주예수 그리
스도! 처음엔 이렇게 부를 때 엄청 싫어했는데 지금
은 포기한 것 같다.** 중2 때 처음 만나서 차라 가
까이 많았다는 이유로 친해지고... (이때부터 뭔가 잘
못했음.) 중3고 넘어가는 순간에 트러블이 조금 지속
되긴 했지만 잘 소화시킨 듯. 나날이 예뻐지는 주예
수! 많이 쪼와해.

다음은 제란 못 먹는 여리. 네 소식은 항상 제일여고
의 두 명 덕분에 잘 듣고 있어. 차기들이랑 통 안 만난
다고 엄청 화소연을 하던데 네 배사 보리 또 그건 하
닌 것 같고... 후리 너무 좋아하지 마. 화sang 입는 c
r9..? ㅋㅋ(절연 위기!!)

다음은 나의 사랑 너의 사랑 공비! 너 뽕새 왜 이렇
게 좋아 있냐...? 기분 탓인가. 많이 힘드냐.....? 하
리 어쨌든 공부한다고 폰 잘 안 만지는 것 같은데 내
가 타이밍이 맞는 건가. 항상 보이네. ㅎㅎ 밝긴 후
리 공비는 옛날부터 내가 잘 맞았지.0' 음~ 나도 말
하 사랑해. 힘 내. 이고!

TO. 동궁이, 반담이, 또라이♡♡♡



안녕!!! 나는 놀보야!! 지금 후리는 고2지. 고2병에
걸려 부렸쓰...
그래서 너네들이 원래 안하던 공부도 더 안하고 정
말 태그하면 바로 보고 정말 대단해!!
후리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보고 놀자!! 그리
고 흑집사도 보러가자!!
정다혜는 어제 같이 보러가서 입덕시켰고 이제 너
네 둘만 남았어!!
후리 다 함께 흑집사를 파는 그 날까지 영업을 완
성하겠습다!!

제발 공부 좀 하고 이게 나올때면 이미 완전 잘 놀
고 있겠지??
그럼 후리 제발 정신차리고 살자ㅋㅋ
동그리는 같은 반이라서 해일 보고 반담이는 강~ 후
리반인줄ㅋㅋ
후리 다혜는... 안녕.. 이고..?ㅋㅋㅋㅋ
후리 계속 잘 살자! 그러면 나는 이만 사라진다.
안녕—

-From. 17.04.17. 0시 45분 놀보야 썸♡

생일축하해 부깸아

작년엔 내 개인사정보로 축하를 못했었지만 이
번에는 진짜진짜 축하해!!
제작년에는 뭐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생일
축하해!!
중2때는 그해... 세월호를 타고 있던 사람들을 위
해서 잠시 묵념을 하고...
다시 중2때는! 문상했었나...? 너가 나한테 준
건가? 몰라
올해는 정말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준비되어 있
을 리가 없어!
전혀안여랑 안한거냐 먹고 집이냐 들어가 ㅎ
ㅎ 강
문상 준거 해들끼리 나눠 쓰고... 하창 그해 문상
정훈이한테 있잖아 달라고했음 ㅎ.
푸~ 난 정말 엄청이여 영양가 없는 이런 것들을
다 읽고 있잖아...
올해도 다 읽었다는거 듣고 창 시간남비 잘한다
생각함 한결 같네..ㅋㅋㅋㅋ
고맙다 사랑하는거 알지?
후로 너 여자친구한테 너 사랑을 많이 뽕기고
있잖아...
후리한테 뽕기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뽕는 사랑
이 없었는데 ㅜㅜㅜ



이제는 진짜 없잖아 ㅜㅜㅜㅜ 나뽕어...
몰라
그냥 생일 해 하우것도 선물 못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돈 만드는 선물을 줄려고 ㅎ ㅎ
이거 잘라서 코팅지에 잘 코팅해놔! 히히~
부깸아 사랑해♡

-From. 너의 사랑하는 친구가



다음은 후리 다혜여. 다인아, 안녕?

다음으로ㅋㅋㅋㅋㅋㅋㅋ 시비중 음하! 너안 보면 도리
명가 밖에 생각이 안 난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다
이어드 중이거든. 어머나 상존 닭갈비집 아직도 하
지...? 해고프다... 난 왜 나만 보면 시비냐...? 내가
야우리 너네... 어? 너네... 쫄따구지만... ㅜㅜ 뽕새 왜
안 보이냐. 보고 싶어.

그다음은 혼남 하동여! 그다하 가장 개인적으로 연락
많이 하는 녀석. 못 민겠지? 하지만 내가 그만큼 친구
와의 교류가 없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살인 메세지
다 카톡만 163729362가임. 너처럼 한 번씩 전화를 해
려면 모르는데 메세지는 정말 보기가 귀찮아서... 어
쨌든 항상 전화를 해하러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안
심하고 감동한다. ♡

행방불명 된 재민이를 찾습니다. 수려한 외모에 크
지 않은 키와 남자처럼 갖고 싶어 만드는 목소리의
소유자이며, 초등학교 때부터 형 군대 가는 날까만
세고 있더니 현황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례금 200
원 드립니다.

하리악으로 귀명동이 하재. 뽕새는 좀 재현이라 불리
는 것 같더라. ㅎㅎ 음 뽕새. 하재. ㅎㅎ 너도 네 이
름이 어색하지 않냐...? 용건 있을 때만 문자하러 알
고 소름 좀 해줄래...? 후리 하재 예뻐서 저번에 비
리 빌려라 갔을 때 찍은 사진 아직도 있다. ♡ 성격
은 그대로더라.

후리 못난이들 목 많이 먹고 항상 건강하길 빌고, 고
등학교 생활 많이 힘들겠지만 잘 버티내고 꼭 성인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우리 모두 함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장애인 : [명사]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사람.

「잠깐~!! 알고 가겠습니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
2017.04.20. 37회

평소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년 4월20일,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왔습니다.



국제 장애인의 날 (12월 3일)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전 세계 장애인의 복지와 재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UN이 1992년부터 시행한 날로 매년 12월 3일을 기념한다.
1982년 12월 3일 제37회 UN 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을 통과시킨 것에서
그 날씨가 비롯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장애보다 능력을 먼저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인재가 보입니다.



후손으로 희망을!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필통네모
로직퍼즐**

독자여러분! 필통 네모로직 퍼즐 퀴즈를 풀어 완성된 퍼즐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필통 홈페이지(www.feeltong.org)에 마련된 <자유 게시판> 게시판에 올려 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특으로 전송해 주세요.

[이번 호는 2017년 5월 18일(수)까지 접수분에 한해 추첨합니다]

보내주신분들 중 추첨을 통해 20분을 추첨해 2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을, 또 18명에게 문화상품권 5천원을 각각 드립니다. 당첨도신분들은 필통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다음호 신문에 게시합니다.

※ 네모로직이란?

간이 있는 숫자퍼즐과 윗쪽과 왼쪽에 있는 숫자들 만큼 칸을 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퍼즐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의 숫자가 가진 규칙을 활용해 한 칸 한 칸 색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퀴즈입니다. 공부하다 잠 올때,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전해 보세요. 필통으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무지 높은 것 아니죠??

〈로직의 기본 규칙〉

- 문제의 위와 왼쪽에 있는 숫자는 해당열 안에서 연속해서 칠 할수 있는 칸의 수를 의미한다.
- 한 열에 여러 개의 숫자가 있는 것은 숫자의 순서대로 숫자만큼 칸을 연속해서 칠함
- 칠해지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반드시 한칸의 이상의 공란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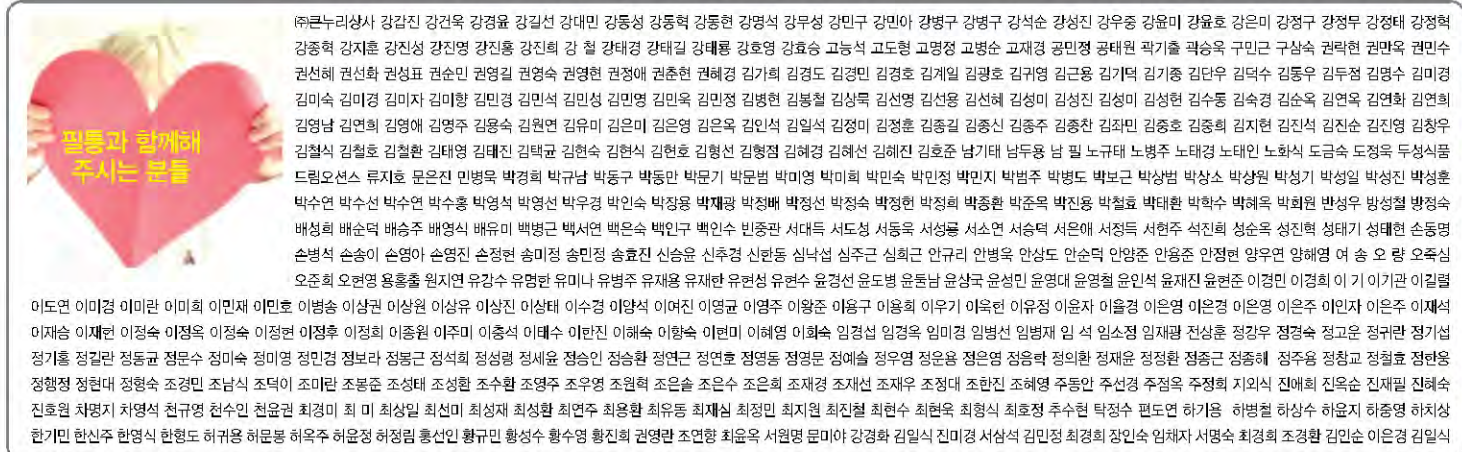
[illegible]

축하합니다! 지난호 당첨자

1등 : 박지영(경해여고1-5)/ 이승훈(중앙고2-7)
2등 : 허지아(진주여중3-2)/ 배재현(진주중3-6)/ 김은희(불원중3-4)/ 심나영(경해여중3-2)/ 이도훈(동명중2-8)/ 김선호(진강고1-8)/ 진현하(진서고2-1)/ 홍성태(진주기공2-7)/ 김다은(진명여중2-8)/ 공민기(사대부고2-4)/ 김진효(경진고2-7)/ 권이재(산명여고2-7)/ 한대유(진주고2-6)/ 심세운(제일여고1-1)/ 정영서(경해고2-1)/ 김진우(명신고1-6)/ 권혜철(삼현고2-1)/ 백민정(진주여고2-3)/ 이영재(대이고2-3)/ 강우승(동명고2-8)/ 호보경(삼현여고3-8)

청소년 여러분 많은 응모 바랍니다.

※당첨된 분은 학생지나 또는 선생님이 문화상품권을 전달해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일 받지 못하는 경우 필독으로 연락 주세요 (대표전화/ 070-8628-1318 / hp 010.3881.8808 카톡으로 메세지도 남겨주세요)



한샘서점/커피북는<신안,평거,이현동>바람이불어오는
 /여중문고/성지원<시내지역>제일안경원/동산교회/디
 노프케이프/오피오피/카코이도보리/술/박대축의원/

대표이사 이혁 / 편집인 편집국장 김가희

[illegible]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FEELTONG 

(우) 660-980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봉동, 2층) / 1999년 4월 9일 창간 / 등록번호 진주라00001(월간) / 발행인 인쇄인 대표이사 이혁 / 편집인 편집국장 김가희
전화 070-8628-1318 팩스 0303-0957-1318 / 홈페이지 www.ifeeltong.org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